

1990년대 초 독서 대중화 운동과 독서교육

A Study on Reading Popularization Movement and Reading Education in the Early Period of 1990's

윤 금 선(Keum-Sun Yeun)*

< 목 차 >

- | | |
|------------------------------|---------------------------|
| I. 머리말 | III. 1990년대 초기 독서경향 |
| II. 1990년대 초기 독서 대중화 운동 | 1. 통계에 나타난 독서경향 |
| 1. 도서관을 통한 독서운동 | 2. 내용으로 본 독서경향 |
| 2. '책의 해'와 도서관 법 제정을 통한 독서운동 | IV. 1990년대 초기 학계의 독서교육 연구 |
| 3. 출판계와 문화단체를 통한 독서운동 | V. 맺음말 |

초 록

이 연구는 1990년대 초기 독서운동과 독서교육의 양상을 고찰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특히 본고는 근현대 독서 대중화 운동을 전반적으로 검토하기 위한 시론으로서 일제 강점기, 건국기, 1950년대, 1960년대, 1970년대, 1980년대 독서 대중화 운동 연구에 이은 후속 연구에 속한다. 이러한 일련의 연구 목적은 시기별 독서 현상의 변화상을 비교 분석하여, 오늘에 이르는 독서운동과 독서교육의 현주소를 찾아보려는 데 있다. 제반적인 독서 현상에 대한 분석은 그에 따른 향후 독서운동과 독서교육을 보다 효과적으로 전개시키는 토대를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본문에서는 첫째, 1990년대 초기 독서 대중화 운동의 양상, 둘째, 1990년대 초기 독서경향 등으로 대별하여 고찰하였다. 특별히 독서경향에서는 사회 전반적인 독서운동의 양상과 공교육 내에서의 독서교육 현상을 비교하려는 목적에서, 일반독서와 학생독서를 구별하여 살폈다.

키워드: 독서 대중화 운동, 독서 경향, 독서교육, 도서관, 1990년대 초기, 일반독서, 학생독서

ABSTRACT

This research allows purpose to investigate aspect of reading movement and reading education in the early period of the 1990's. This is succession research that is the Japanese Occupation Period, after release, the 1950's, the 1960's, the 1970's, the 1980's reading popularization movement research as current trend of opinion to examine modern reading popularization movement. Such series research that reading phenomenon analyzing comparison, is to find present address of reading movement and reading education, accordingly all sorts correct judgment about reading phenomenon, hereafter that will be foundation that unfold reading education more effectively. In main discourse first, investigated, reading movement, and second, observed classifying distinguish reading of student from reading of ordinary people by readers' interest etc.

Keywords: Reading Popularization Movement, Readers' Interest, Reading Education, The Library, The Early Period 1990's, Reading of Student, Reading of Ordinary People

* 동덕여자대학교 교양교직학부 전임강사(east124@dongduk.ac.kr)

• 접수일: 2008년 2월 23일 • 최초심사일: 2008년 2월 25일 • 최종심사일: 2008년 3월 21일

I. 머리말

본고는 근현대 독서 대중화 운동을 전반적으로 검토하기 위한 시론으로서 특별히 1990년대 초기를 중점적으로 다루었다. 참고로 이 연구는 근현대 독서 대중화 운동 연구의 한 부분임을 밝힌다.¹⁾ 근대적인 의미의 독서가 시작된 1920년대부터 2000년대 오늘에 이르는 독서운동과 독서교육의 현주소를 찾아보려는 데 그 최종 목적을 두고 있다. 근현대에 이르는 독서현상의 양상을 시기별로 고찰하는 이러한 작업들은 향후 독서운동과 독서교육을 보다 효과적으로 전개시킬 수 있는 토대가 될 것이다.

구체적인 연구 과정에서는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첫째로는 1990년대 초기 독서운동의 양상을, 둘째로는 1990년대 초기의 독서경향 등으로 대별하여 고찰하였다. 1990년대 초기는 '책의 해'가 설정되고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이 제정되었으며, 도서상품권의 부활 등 거국적인 독서 행사와 정책이 시행된 시기이다. 또한 5차 교육과정기(1988~1992)가 끝나고 6차 교육과정기(1992~1997)가 진행되던 시기로서 학계에서도 독서교육에 대한 관심이 지대했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시기적인 특성을 염두에 두면서 당대 독서운동 및 독서교육의 제반 현상들을 일종의 사회사적인 측면에서 연구했다. 이에 따라 사회 현상을 잘 드러내는 신문 자료를 토대로 기술했음을 밝힌다.²⁾

II. 1990년대 초기 독서 대중화 운동

1. 도서관을 통한 독서운동

공공도서관의 독서운동은 1920년대부터 지속적으로 이어져 온 것으로서 다양한 활동상을 보였다. 먼저 매년 실시되는 '독서주간'은 도서관의 빠질 수 없는 행사로서, 90년대에도 40여회를 기록하며 정기적인 독서붐을 형성시키는 역할을 했다. 이 행사는 '전국 공공도서관', '한국도서관협회', '대한출

-
- 1) 윤금선, "1920-30년대 독서운동 연구한말연구(한말연구학회), 제17집(2005. 12), 윤금선, "讀書新聞 고찰", 국어교육연구(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 제15집(2005. 6), 윤금선, "해방 이후 독서 대중화 운동 연구", 국어교육연구(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 제17집(2006. 6), 윤금선, "독서 대중화운동 연구-1960년대를 중심으로",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한국도서관·정보학회), 제38권 제2호(2007. 6), 윤금선, "독서 대중화운동 연구-1970년대 초기를 중심으로" 국어교육(한국어교육학회), 제124호(2007. 10), 윤금선, "1970년대 독서 대중화운동 연구-중·후반기를 중심으로", 국어교육연구(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 제20집(2007. 10) 등.
 - 2) 본고에서 텍스트로 삼은 것은 주로 1990년대에 발간된 『中央日報』이다. 기타 보도가 부족한 경우 여타 신문도 참조했다. 사실 전달의 매체라는 신문의 성격상, 당대 독서운동의 보도 기사는 어느 신문이나 유사하다. 이런 점에서 어느 신문을 택해도 크게 차이는 부분은 없다고 여겨진다. 그러나 당대 독서 대중화 운동의 제반 현상들에 대한 신문사의 분석은 각기 다를 수 있다. 이를 비교하기 위해서 차후 당시의 여러 신문들을 참조할 계획이다.



〈그림 1〉 ‘움직이는 도서관’ 버스(『中央日報』, “이동 열람도서관 본격 운영”, 『中央日報』, 1991.7.14)

판문화협회’가 공동 주관한 것으로 크게 독서토론회, 학술 심포지엄 등 독서 권장행사와 독서지도 강화, 독서환경 조성사업으로 구분됐다. 구체적으로 보면 도서관에서는 우수 독후감 모집, 문학강좌, 모범이용자 표창, 작가와의 대화, 어린이 글짓기대회, 구연동화 발표, 독서교실과 독서강연회 개최, 도서교환장터 개장, 도서전시회, 독서 관련 영화상영, 시 낭송회 등 각종 기념행사를 펼침으로써 국민 독서의 생활화에 앞장섰다.³⁾

도서관에서는 평소에도 여러 활동상을 보였는데,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한 “작은 도서관”이 서울을 비롯한 전국 각 지역에서 지역문화 공간의 역할을 담당하였다. 이러한 지역도서관에서는 무료 또는 소액의 대여료만 받고 지역주민에게 도서대출을 해 주거나, 독서토론회와 각종 강습반 등 소모임 활동을 통해 독서 풍토를 형성하는 데 노력하였다.⁴⁾ 국립중앙도서관의 경우 ‘도서관 문학학교’를 열고 가문뿌리 찾기(한국인의 계보), 자녀교육을 위한 어머니 독서지도, 세계의 고전읽기 등 3개 강좌로 구성된 강의를 진행시키기도 했다.⁵⁾

특히 90년대에 보다 활성화된 ‘이동도서관’⁶⁾은 독서 인구를 보다 증가시키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서울시립도서관’, ‘남산도서관’, ‘새마을운동 중앙협의회’ 서울지부 등이 운영하였는데, 아파트 단지 등 동네를 순회하며 책을 빌려주었다. 책을 싣고 다니며 회원들에게 즉석에서 필요한 책을 빌려주고 반납도 받는 이동도서관은 공공도서관이 집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 이용하기 불편한 사람들에게 독서의 기회를 마련해 주었다. 이동도서관 대출자의 75%가 주부들로 나타났는데⁷⁾, 이 시스템은 주부층 독서인구 개발에 효과적이었음을 반영한다.

- 3) “제36회 독서주간 기념행사”(『中央日報』, 1990.9.27), “독서주간 맞아 강좌 등 행사”(『中央日報』, 1991.9.25), “알뜰 책 교환장터 개설”(『中央日報』, 1994.9.3).
- 4) 당시 이러한 지역도서관은 서울의 경우 면목동의 「푸른 소나무」, 신림 7동의 「난곡 주민도서관」, 신림4동의 「책마을」, 장안동의 「새빛 무료도서관」, 홍은 2동의 「사랑방 주민 도서관」, 금호동의 「밀알의 집」, 무학동의 「그루터기」, 구로동의 「두레방」과 「한벗」, 가리봉동의 「반달」, 당산동의 「새 날을 여는 집」, 성수동의 「열린 글방」 등 줄잡아 20여 곳이었고, 이밖에 인천의 「글서당」, 안양의 「안양독서회」, 경남 진주의 「책나눔 사랑나눔」, 김제의 「새날문고」 등이었다. 이들 도서관의 공통적인 운영방식은 회원들에게 매달 2,000~4,000 원의 회비를 받거나 책 2~3권을 기증 받는 형태였다.(“지역도서관 문화공간으로 정착”, 『中央日報』, 1992.4.10).
- 5) “잊혀져가는 우리의 뿌리 찾는다”(『中央日報』, 1991.10.15).
- 6) 이동도서관은 80년대 초기부터 시작되었다. 소위 ‘자동차 이동도서관(Book Mobile)’이라 하여 주민들의 호응이 높았다(“마을순회 자동차도서관이 는다”, 『中央日報』, 1984.8.29).
- 7) 새마을 이동도서관은 91년 한해 동안 397,923명이 이용, 하루 평균 1,737명이 이동도서관을 찾은 것으로 집계됐다. 도서 대출 권수는 1,057,533권으로 전년도인 89년에 비해 약 44%가 늘어난 셈. 이용자의 60.8%가 주부로 압도적이었는데, 특히 고졸 이상의 학력을 가진 20대 후반~40대 초반의 주부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었다.(“주부들에 인기 높다”, 『中央日報』, 1990.3.21, “구별로 이동도서관 차량 3편까지 빌려줘”, 『中央日報』, 1990.5.11).



〈그림 2〉 “어린이전용 도서관 6곳
겨울방학프로 다양”(『中央日報』,
1994.12.13).

도서관에서는 91년도부터 보다 본격적인 이동도서관 운영에 나섰다. 지역을 순회하며 책을 대출해주던 것에서 더 나아가 역, 터미널, 운동경기장 등에 대기하면서 인근 주민이나 경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책을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도서관은 대형버스를 열람실로 특수제작하여, 버스에 서가를 설치하고 열람석은 물론 냉·온장고까지 비치해 무료로 음료까지 제공했으며, 신간·우량도서와 VTR·TV까지 설치하여 비디오 프로그램도 시청할 수 있게 했다. 뿐만 아니라 전시·공연 등 각종 문화행사 정보자료도 비치했다. 열

람 도서관에는 항상 전문 사서가 동승하여 이용에 따른 문의나 도서정보를 제공하고 자녀의 독서지도 방법, 효과적인 독서방법, 책 고르는 법 등의 의문 사항에 대해 직접 이용자들의 질문에 응했다.⁸⁾ 이러한 시스템과 유사하게 지방에서는 주민들이 전화나 서신으로 대여를 신청하면 직원이 현지를 출장하면서 각종 도서를 대출·반납하는 업무를 보기도 했다.⁹⁾

도서관에서는 전대와 마찬가지로 학생 독서운동에도 앞장섰다. ‘어린이도서연구회’ 등을 통해 학부모 대상으로 어린이 독서법, 글쓰기 지도법, 독서지도법의 강좌를 개최했고, 매년 여름과 겨울 방학 2차례에 정기적으로 ‘독서교실’을 운영했다. 여기에서도 독서자료 선택법, 독서법, 독후감 작성법 등을 지도했다.¹⁰⁾ 지방의 경우 ‘순회 독서교실’이라는 이름 하에 도서관이 없는 지역을 돌며 독서교육을 실시했다.¹¹⁾ 특히 어린이전용 도서관들은 다채로운 프로그램들을 가지고 어린이 독서운동을 전개했다. 1994년 12월 당시 수도권에 있는 어린이전용 도서관은 ‘시립어린이도서관’과 사립 ‘인표도서관’¹²⁾ 다섯 곳 등 모두 여섯 개가 있었다. 이 도서관에서는 동화를 읽고 토론하는 ‘독서교실’과 책을 원작으로 하는 영화를 상영하는 ‘비디오교실’ 그리고 ‘유아동화구연교실’ 등을 운영하였고, ‘독서퀴즈대회’, ‘나도 작가라고요’ 등의 프로그램을 마련했다.¹³⁾ 또한 90년대 초부터 미취학 아동의 도서관 이용율이 증가했다는 점도 주목된다. 그것은 도서관마다 유치원 견학 프로그램 등을 통해 미취학 아동들에게 도서관 이용을 적극 유도하고 있는데다 조기교육 분위기에 따라 일찍부터 자녀에게 독서습관을 길러주려는 젊은 어머니들이 많아졌기 때문이다.¹⁴⁾

8) “이동 열람도서관 본격 운영”(『中央日報』, 1991.7.14).

9) “마포도서관 무료방문대출”(『中央日報』, 1993.10.27), “도서 방문대출제 실시”(『中央日報』, 1994.6.22).

10) “全國 작은도서관大會”(『中央日報』, 1994.3.10), “어린이 여름독서교실”(『中央日報』, 1994.6.27).

11) “여름 순회독서교실 운영”(『中央日報』, 1994.8.1).

12) (주)에스콰이어에서 운영하는 사립도서관으로 수도권에서는 상계동, 월곡동, 가양동 등과 인천 등 다섯 곳에서 운영했다(“어린이전용 도서관 6곳 겨울방학 프로 다양”, 『中央日報』, 1994.12.13).

13) “어린이전용 도서관 6곳 겨울방학 프로 다양”(『中央日報』, 1994.12.13).

14) “공공도서관마다 어린이 독서열기”(『中央日報』, 1994.8.30).

90년대 도서관의 또 다른 특징으로는 찾아오는 사람만을 대상으로 한 소극적인 도서관 개념에서 과감히 탈피하여, 정보문화센터로서의 역할을 강화했다는 점이다. 즉 국립중앙도서관의 경우 도서관에 찾아오지 않고도 정보를 검색·수집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춰 서비스에 들어갔으며 전국의 공공도서관과 대학도서관을 하나로 묶는 전산망 구축을 추진하였다. 또 도서정보가 전산화됨에 따라 혼란을 겪고 있는 도서정보의 표준화를 위해 퍼스널 컴퓨터 및 대형컴퓨터용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보급하였다. 열람의 편의를 위해서 중앙도서관에 소장된 국내도서 전량(全量)을 검색할 수 있는 단말기를 늘려 기업정보 자료실, 어문학 자료실, 도서관문화 자료실 등도 대폭 확충했다. 이와 연결하여 당시 가장 획기적인 서비스로 관심을 끈 것은 ‘글방전화’였다. 각종 서비스가 추가된 ‘글방전화’는 직접 도서관에 오지 않고도 집이나 사무실에서 모든 소재에 대해 궁금한 정보를 문의해 볼 수 있었으며 팩스를 이용하여 구체적인 자료를 받아볼 수도 있었다.¹⁵⁾ 전 시기에 비하여 90년대의 도서관은 그 기능이 더욱 다양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2. ‘책의 해’와 도서관 법 제정을 통한 독서운동



〈그림 3〉 “책의 해” 선포식(『中央日報』, 1993.1.19)

1993년은 ‘책의 해’로 선포된 연도이다. 이 한해는 ‘책을 펴자, 미래를 열자’, ‘책 읽는 사람이 이끄는 사회’라는 표어를 내걸고 독서문화를 보급하기 위한 각종 행사가 펼쳐진 시기이다. ‘책의 해’ 조직위원회가 주최하는 각종 도서전시회, 도서 교환시장, 명작의 고향 탐방, 전국순회 독서강연회 등을 비롯하여 독서운동을 위한 시민단체가 결성돼 회원모집에 들어가는 등 독자들의 관심에 따라 여러 가지 기회를 접할 수 있게 되었다.

국립중앙도서관에서도 책의 해를 맞아 ‘어머니 책상갓기운동’을 전개했다. 기존에도 ‘셋별’, ‘샘물’, ‘아람’ 등의 동아리를 통해 ‘주부 독서클럽 배가운동’을 벌이고 있었는데 이와 함께 맞물려 주부 독서 붐을 일으켰다.¹⁶⁾ 대형서점에서도 책을 매개로 하는 다양한 문화이벤트를 가졌고, ‘구간명저(舊刊名著)’ 할인판매, ‘알뜰 도서 교환시장’ 개장, 작가와의 대화, 독서회원제 도입, 크레디트 카드 발행, 신간정보·베스트셀러 안내, ‘홈쇼핑’을 통한 통신판매의 활성화 등을 전개했다. 이에 서점가의 매출이 대폭 증가하는 등 책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아졌다. 서점들이 마련한 행사는 독자들과 만나는

15) “도서관정보 수집 앓은 자리서 한다”(『中央日報』, 1993.4.18).

16) “책의 해 이색 캠페인 독서 사색”(『中央日報』, 1993.5.11).

현장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특히 독서문화 확산에 크게 기여하였다.¹⁷⁾

한편 '책의 해'를 기하여 책읽는 환경을 제도적으로 마련해보자는 취지에서 책의 해 조직위가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을 추진했다.¹⁸⁾ 정부 출연금과 개인의 기부금으로 독서진흥기금을 마련하고, 대형 건축물을 지을 때 '작은 도서관'을 짓게끔 권장하며, 또 읍·면·동 단위의 행정기관에 공공문고 설치를 의무화하고 문고 및 기부금에 과세 특혜를 적용한다는 등의 내용이 골자였다. 당시 논자들은 독서진흥법이 단순히 책읽기를 권장하는 수단으로 끝나지 않고 문화정책의 중요한 전기가 되기 위해선, 도서실이 독서·독서실이라는 단순 개념을 넘어 복합 문화공간 개념으로 확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즉 지방 자치단체나 지역 기업들이 참여해 '작은 도서관'을 짓고, 그 속에 도서관과 컴퓨터실, 오디오실, 비디오실 등을 구비함으로써 지역문화의 복합적 문화공간으로 동네의 사랑방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¹⁹⁾ 2000년대 오늘날 소위 '정보도서관'이 바로 이러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데, 바로 90년대 초부터 그 필요성이 요구되었고 바로 지금 여기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이렇듯 90년대 초기에는 특별히 '책의 해'가 설정되는 등 독서하는 사회기풍을 조성하는 다양한 사업이 대대적으로 펼쳐진 시기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3. 출판계와 문화단체를 통한 독서운동

1990년대 초기는 출판계가 그 어느 때보다 활성화되었던 시기이다. '책의 해'가 설정되어 독서붐이 거국적으로 일어났고, 70년대 이후 중단되었던 '도서상품권'과 '서울도서전'의 부활 등 출판문화 육성 무드가 형성되었다. 도서상품권 제도는 1970년 3월 한국출판금고가 500~2,000원권 공통도서권 4종을 발행·판매함으로써 우리나라에서 처음 선보였다. 그 후 재무부가 과소비 조장 등을 이유로 75년에 상품권제 자체를 폐지함에 따라 자취를 감추었다. 출판업계는 10여년 동안 당국에 도서보급 및 독서인구 증대를 위한 유통구조 개선책의 한 방법으로 도서상품권 제도를 부활시켜줄 것을 계속해서 요구해 왔다.²⁰⁾ 1991년 4월 드디어 문화부는 건전 출판문화 육성과 국민의 독서생활화를 위해 도서상품권 5,000원권을 발행하였다.²¹⁾ 이로써 가맹점이 늘고 선물로 도서상품

17) "책의 해 선포식"(*『中央日報』*, 1993.1.19), "대형서점 책의 해 행사 다양"(*『中央日報』*, 1993.2.6), "다양한 '책의 해' 행사"(*『中央日報』*, 1993.3.16).

18) 독서 진흥을 위한 법안은 다음과 같은 변천 과정을 보인다. 1963년 10월 28일 최초로 「도서관법」(법률 제1424호)이 개정되었고, 1987년도에는 「개정도서관법」, 1991년도에는 「도서관진흥법」, 1994년도에는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등이 제정되었다(한성택,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변천과정에 관한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한국도서관·정보학회), 제33권 제4호(2002. 12), p.307 참조).

19) "독서진흥법의 뜻 살리려면"(*『中央日報』*, 1993.8.7).

20) "도서상품권제도 부활 움직임"(*『中央日報』*, 1990.6.24), "도서상품권 15일부터 발매"(*『中央日報』*, 1991.4.11).

21) "건전출판문화 육성위해"(*『中央日報』*, 1990.4.12).

권을 주고받는 풍토가 조성되어 독서인구 확대의 한 계기를 이루었다.²²⁾ 또한 90년도부터 ‘대한출판문화협회’가 주최하는 ‘90서울도서전’이 다시 열렸는데, 이 도서전은 80년대 초에 방송국과 연합한 대대적인 도서전으로 책의 축전과 같은 행사였다. 그러나 85년 이후 중단되었다가 무려 5년만에 재개된 행사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다.²³⁾

한편 신문사는 물론 방송매체를 통한 독서운동도 보다 확산된 움직임을 보였다. 신문사는 독서란을 통하여 다양한 독서 기사를 게재하여 여론 지도에 나섰다, 독후감 공모를 정기적으로 시행했다. 방송에서도 신간 안내와 함께 서평을 곁들이고, 작가와 만나보는 프로를 마련하고, 출판계 소식과 독서요령을 알려주었으며, 독서토론회를 정기적으로 내보냈다. 때론 방송국 자체가 문학캠프를 열고 독서교육을 실시하기도 했다.²⁴⁾

또한 90년대에 들어서서 정보화 사회의 핵심인 출판 산업의 전산화가 보다 시급하게 되었다. 출



<그림 4> “출판사, 서점, 책대어점”(『中央日報』, 1994.12.26).

판 정보의 검색하는 데이터베이스 서비스 2. 독자와 출판사·서점을 중계하는 통신판매 3. 독자들이 참여해 독후감 발표와 토론, 독서클럽 운영 등을 할 수 있는 전자게시판 4. 서점과 출판사 간의 거래 정보 처리를 자동화해주는 EDI(전자자료교환)서비스 등의 컴퓨터 프로그램을 선보였다.²⁵⁾ 책이 다른 매체와의 경쟁 속에서 존속하기 위해선 문화매체로서 인식되어야 하며, 멀티미디어 시대에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독서습관을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책 뿐 아니라 모든 매체를 통합하여 동원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견해도 보였다.²⁶⁾

한편 91년에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독서교육을 전문으로 하는 기관이 생겨나 관심을 모았다. 사단법인 한우리 독서문화 운동본부의 ‘한우리 독서 문화대학’이 그것이다. “독서를 통한 건전한 정신풍토와 올바른 가치관의 정립”을 내걸고 직장인·주부들을 대상으로 독서회원을 모집하였다. 매달 필독도서 2권씩을 의무적으로 읽고 그때마다 독후감 리포트를 제출함으로써 독서학점을 이수하게 되어 있었다. 독서 운동의 지방 확산을 위해 직할시·도청 소재지, 대단위 공업 단지

22) “가맹점 늘고 선물로 인기 도서상품권 뿌리 내린다.”(『中央日報』, 1991.9.6), “설날 세배선물은 도서상품권으로”(『中央日報』, 1993.1.19).

23) “5년만에 부활 서울도서전 다채로운 행사”(『中央日報』, 1990.10.7).

24) “출판계 소식과 독서 요령”(『中央日報』, 1990.8.17), “문학 강좌 무대 녹음 방송”(『中央日報』, 1990.8.3), “사회·교양”(『中央日報』, 1992.1.29), “E. H. 카 『역사란 무엇인가』”(『中央日報』, 1993.6.29).

25) “출판산업 전산화 더딘 걸음”(『中央日報』, 1991.6.21), “출판정보통신망 독자에 꼭 필요”(『中央日報』, 1993.5.9).

26) “멀티미디어시대 책의 진로와 전망 주제 국제심포지엄”(『中央日報』, 1993.11.19).

등에 지부를 설치하는 한편, 각 기업체들과 직장 내 종업원들을 대상으로 한 운영에도 주력하였고 정기적으로 국민필독서를 선정하여 제시하기도 했다.²⁷⁾

90년대 초기에는 독서회도 다시 활성화되었다. 독서모임은 80년대 초에 활발했다가 후반기에 들어 주춤한 현상을 보였다. 그러나 90년대 들어서 ‘한국애서가클럽’, ‘주부독서클럽’, ‘주부독서대학’, ‘어린이독서클럽’, ‘독서동호인’ 등의 독서회가 곳곳에서 조직된 것이다.²⁸⁾ 또한 각 지역 ‘구민회관’에서 주로 공공도서관 도서관에서 행했던 독서경진대회·독서대학 등을 열고 주민 독서 분위기를 조성했다는 점도 주목된다.²⁹⁾ ‘독서새물결운동’ 추진위원회에서도 월간 『독서새물결소식』을 제작하여 각급 학교 및 도서관공서, 기업 등에 배포하여 독서하는 사회 분위기 조성에 기여하였고, 새마을문고중앙회의 ‘독서토론회’, 교보문고 등 대형서점의 ‘책사랑운동’, ‘사랑의 책보내기 운동’, ‘내 고장 책보내기 운동’³⁰⁾ 등의 독서운동도 전개됐다. 또 ‘고전 읽기 백일장’을 통해 60~70년대 이후 소홀했던 고전 읽기 운동이 다시금 일어났다.³¹⁾ 각 문화단체들이 방학마다 학생들을 위한 독서캠프를 개최했고, 동네 주부들이 서재나 거실을 개방하여 독서지도, 동화구연 등을 하는 ‘동네 어린이 도서관’ 붐도 일어났다.³²⁾

이 시기에 헌책 바꿔읽기나 재고 도서 할인 행사 등이 잦아졌다는 점도 한 특징이다. “안보는 헌책 보고싶은 책과 교환”(『中央日報』, 1992.3.30), “할인매장 대형서점 급증”(『中央日報』, 1992.7.24), “알뜰 도서교환 시장 개설”(『中央日報』, 1992.10.8), “책 바꿔 읽읍시다”(『中央日報』, 1994.10.11), “알뜰 책 교환장터 개설”(『中央日報』, 1994.9.3) 등을 보면 서점이나 백화점, 문화단체 등이 중고서적의 교환과 할인판매를 자주 가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90년대에 재고가 쌓일 정도로 서적이 축적되었음을 의미한다.

또 하나 주목되는 것은 ‘도서대여업’이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 일대에서 크게 번창했다는 점이다. 직원이 직접 사무실을 찾아다니며 책을 배달하는 소위 ‘가방 책돌리기’ 영입이 큰 규모로 자리잡았으며 체인 형태로 급증하는 추세였다.³³⁾ 도서대여점은 1950년대에도 이미 존재했었다. 곧 대서점(貸書店)이라 하여 책이 귀하던 시절 도서를 제공해 주는 한 창구가 되기도 했다. 그러나 60년대 이후 자취를 감추기 시작했다. 이것은 물론 경제성장과 무관하지 않다. 빌려 읽었던 사람들이 사 읽는 추세로 바뀐 것이었다. 그런데 90년대에 들어 새삼 전국적으로 도서대여점이 번창하기

27) “국내 첫 독서 전문교육기관 개설”(『中央日報』, 1991.3.10), “국민 필독도서 1차 50권선정”(『中央日報』, 1990.4.10).

28) “책의 해 이색 캠페인 독서 사색”(『中央日報』, 1993.5.11), “좋은 책 읽는 풍토 조성한다”(『中央日報』, 1992.2.20), “독서인구 확대에 앞장 한국 애서가클럽”(『中央日報』, 1991.9.27), “대구지역 독서동호인회 호응 독서모임 늘어”(『中央日報』, 1994.2.22).

29) “독서경진대회 등 열어”(『中央日報』, 1991.12.3), “선수촌아파트 마을문고 인기”(『中央日報』, 1992.8.17).

30) “내고장 책보내기 시민들 큰 호응”(『中央日報』, 1992.7.25), “사랑의 책보내기 운동”(『中央日報』, 1994.2.1), “『독서새물결소식』창간”(『中央日報』, 1994.6.23), “독서대토론회 개최”(『中央日報』, 1994.9.22).

31) “고전 읽기 백일장대회”(『中央日報』, 1992.6.20).

32) “자연을 벗삼는 여름캠프 활짝”(『中央日報』, 1993.6.29), “동네 어린이도서관 붐”(『中央日報』, 『中央日報』, 1993.9.20).

33) “대여책방 가맹점 서울에만 2백여 군데 성업중”(『中央日報』, 1994.3.2).

시작한 현상이 주목된다. 평자들은 이것은 ‘책은 읽고 보관하는 것이 아니라 읽고 버리는 것’ 이라는 일반적 인식이 팽배해 있었기 때문이며, 일례로 대개의 베스트셀러의 경우 비록 흥미있게 읽기는 하되 장서(藏書)로서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는 풍토가 그것을 반영한다고 지적했다.³⁴⁾

Ⅲ. 1990년대 초기 독서경향

1. 통계에 나타난 독서경향

1990년대의 독서경향에 대한 조사 분석은 주로 출판계, 여론조사기관, 통계청 등 다양한 단체나 기관에서 다각도로 이루어졌다. 다음 <표 1>은 그 중 『中央日報』에 게재된 각종 통계들 중 대표적인 것만을 정리한 것이다.

<표 1> 1990년대 초기 통계로 본 독서경향(『中央日報』 기사 자료)

| 번호 | 기사명 | 게재 연월일 | 통계로 본 경향 | 비고 |
|----|--------------------|-------------|--|---|
| 1 | 대학생들 "금서 읽어봤다" 44% | 1990.4.15 | 금서를 읽어본 경험(44%), 북한원전 읽어보았다(20%). [연평균 독서량] 평균 18.5권 [감명깊게 읽은 책] ① 어린왕자 ② 데미안 ③ 대지 ④ 태백산맥·삼국지·나의 라임오렌지나무 ⑤ 죄와 벌 ⑥ 사람의 아들·좁은문 ⑦ 지와 사랑·생의 한가운데·이방인 ⑧ 노인과 바다·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천국의 열쇠·철학에세이·성경 ⑨ 짧은날의 초상·여자의 일생 ⑩ 세계는 넓고 할일은 많다·성자가 된 청소부·수레바퀴 밑에서·어머니·제인 에어·탈무드·파우스트 등. [좋아하는 저자] ① 헤르만 헤세 ② 펠릭스 ③ 이문열 ④ 생텍쥐페리 ⑤ 도스토예프스키 ⑥ 조정래 ⑦ 앙드레 지드 ⑧ AJ 크로닌·루이제 린저 ⑨ 헤밍웨이 ⑩ 카뮈·톨스토이 순 [책을 못읽는 이유] ① 다른 일 때문에 시간이 없어서 ② 공부 때문에 ③ 어떤 책을 읽어야 좋을지 몰라서 ④ 읽고싶은 책을 사거나 빌릴 수가 없어서 등 | 한국출판연구소 전국 대학생 670명 대상 실시 「대학생독서실태조사연구」 |
| 2 | 한 권이라도 끝까지 읽게 | 1990.7.19. | [한달 평균독서량] 1~2권(41.4%), '거의 읽지 않는다'(23.0%), 책을 읽지 않는 이유: '학교공부 때문에'(46.2%), 'TV가 재미있어서'(29.1%), '독서환경이 갖춰지지 않아서'(10.9%) | YMCA 서울지역 중고교생 2,000명 조사 |
| 3 | 교육비부담 힘겹다 | 1990.12.26. | 일반서적 1권 이상 보유가구(91.4%) 국민 1인당 읽는 책(잡지 제외): 4.8권(84년 6.9권. 잡지구독률: 27.5%(85년에 비해 9.7%포인트 감소) | 기획원 조사 올 한 국사회 지표」 |
| 4 | 한국인 독서량 한달 1.21권꼴 | 1991.9.27. | [1개월간 독서경험-잡지 제외] '있다'(39.0%) '한달에 단 한권의 책도 읽지 않는다'(61%). 월간독서율: 89년(32.0%), 90년(40.2%) 독서율: 나이가 적을수록, 직업별로는 학생과 사무근로자가 최고. 전체월평균: 1.21권. [읽고싶은 책] 현대소설(23.0%), 역사·시대소설(15.5%), 수필(14.9%), 사상(철학·종교 등)(14.2%), 사회과학(정치·경제 등)(10.2%), 취미·실용서(10.2%), 추리공상소설(9%) [성별선호도] 남자: 역사·시대소설, 현대소설, 사상, 사회 과학 순, 여자: 현대소설, 수필, 취미·실용서, 사상 순 [도서구입 실 | 한국갤럽 전국 만 20세 이상 남녀 1,500명 개별면접(제주도 제외) |

34) “책대여 전문점 인기”(『中央日報』, 1994.4.24), “출판사, 서점, 책 대여점”(『中央日報』, 1994.12.26).

10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제39권 제1호)

| | | | | |
|---|------------------------|-------------|---|--|
| | | | 태] 1개월간 구입여부(잡지 제외) 구입한 적이 있다(28.3%) 구입 권수: 1권(8.0%), 2권(7.4%), 3권(4.6%), 4(2.2%), 5권 이상(6.0%) [월간책구입율] 87년(18.5%), 89년(25.2%), 90년(27.6%), 91년(28.3%) 책 구입율은 독서율과는 반대로 매년 조금씩 증가. 월평균 구입량(1.63권) 90년(1.08권)에 비해 0.55권 증가. | |
| 5 | 서울 중고생 "휴일에 독서한다" 9.7% | 1992.5.28. | [최근 3개월간 독서량] 평균 2.7권, 한 권도 읽지 않음 14.5%고, 여학생(82.5%) > 남학생(61.8%), 평일 독서(34%), 휴일 독서(9.7%), cf) 휴일에 TV를 보거나 라디오를 듣는다(52.7%) 국내작가(25.7%) 보다 외국작가(74.3)를 선호. 하며, [좋아하는 작가] 황순원(5.3%), 시드니 셸던(3.85), 헤르만헤세(3.1%), 생텍쥐페리(2.9%), 셰익스피어(2.9%), 톨스토이(2.7%), 헤밍웨이(2.2%), 이광수(2.2%) 순 [가장 재미있게 읽은 책] 『삼국지』, 『소설 동의보감』, 『배꼽』, 『양들의 침묵』, 『잃어버린 너 순 [가장 감명깊게 읽은 책] 『잃어버린 너』, 『소설 동의보감』, 『죽은 시인의 사회』, 『나의 라인 오렌지 나무』, 『스무 살까지만 살고 싶어요 순 [도서선택 요인] ▲친구·선배 의견(24.9%) ▲책의 표지·제목(24.5%) ▲광고나 책 소개 기사 ▲메스트렐러 ▲가족의 의견 순. 조사대상 학생의 84.2%가 폭력적이거나 성적인 충동을 일으키는 불량서적을 접촉한 경험. 접촉기회 '친구가 가지고 있는 것을 통해서'(76.6%)가 압도적이었다. 조사대상 9개 학교 중 5개 학교만이 도서실을 구비, 비치도서 중 읽을 만한 책이 '많다'(39.8%) < '많지 않다'(45.8%) 도서실이 '독서용'(9.4%)보다 '공부용'(56.5%) | 한국 갤럽, 9개학교 서 면접조사 |
| 6 | 물질에만 관심...정신투자자는 인색 | 1992.10.4. | [성인 월간독서량(주간지·월간지 제외)] 한편의 책도 읽지 않음(전체61%: 20대(38%), 30대(57%), 40대(70%), 50대(87%) 87년(62.1%), 89년(68%), 90년(60%), 91년도부터 독서부진을 다시 증가 | 한국 갤럽조사연구소 |
| 7 | 책 보유량 | 1993.4.21. | [90년 가정 평균 책보유량] 81·1권(도시지역96·5권, 시골지역 37·2권) '한권도 없다'(8·6%), 20권 이하(25·2%), 50권 이하(24·5%), 100권 이하(19·0%), 200권 이하(13·7%), 500권 이하(7·5%), 501권 이상(1·5%) [학력별] 국졸이하(32·7권), 중졸(51·4권), 고졸(81·1권), 대졸이상(207·1권) cf) 85년 75·5권(도시지역 96·3권, 시골지역 39·1권) | 통계청 조사 |
| 8 | 성인 하루독서 시간 TV시청의 1/4불과 | 1993.11.10. | [성인 주말 소비 시간(관호안은 평일)] ▲TV.비디오 시청 1시간53분(1시간45분) ▲라디오·음악듣기 45분(1시간3분) ▲책·만화읽기 32분(33분) ▲신문보기 30분(32분) ▲영화관람 23분(8분) ▲잠지읽기 10분(10분)의 순 [여가활동 순위와 하루평균 소요시간] ▲고교생 ① TV·비디오 95분 ② 공부 86분 ③ 라디오·음악 80분 ④ 놀기 ⑤ 독서 각 51분. ▲중학생 ① 공부 1백3분 ② TV·비디오 1백2분 ③ 학원·과외 78분 ④ 라디오·음악 64분 ⑤ 독서 46분의 순. ▲국교생① TV·비디오 98분 ② 공부 93분 ③ 학원·과외 78분 ④ 독서 65분 ⑤ 놀기 [학생들의 독서장애 요인] ▲국교생 ① 독서싫증 ② 학원·과외 ③ 공부 ▲중학생 ① 공부 ② 독서싫증 ③ 학원·과외 ▲고교생 ① 공부 ② 독서싫증 ③ 책 선택 곤란 [책을 읽는 목적](성인) ▲지식·정보 37% ▲교양·인격26.2% ▲시간 보내기 15.7%(학생) ▲재미 즐거움 36.8% ▲지식·정보 34.8% ▲학과 도움 12% ▲올바른 사람 11% [좋아하는 독서분야](성인) 국내소설, 종교서적, 번역소설 순. (국교생) 추리·모험·피기소설.(중학생) 탐정·공상과학 소설.(고교생) 번역소설 순. [국민독서진흥책에 바라는 것](성인대상) 저속 TV, 비디오, 출판물 규제가 20.6% ▲언론계 독서캠페인 18.9% ▲입시위주 교육개선 16.1% ▲도서관·문고 신설 기능강화 11.1% ▲학교도서관 신설 활성화 10.7% ▲학교 독서교육 활성화 8.3%의 순 | '한국출판연구소'와 '책의 해 조직위원회'의(제1회 국민독서실태조사) |
| 9 | 대학생 가장 잘가는곳 술집 35% | 1994.12.18 | 여가 활용 방법: '독서'(27.4%), 연극·영화관람(24.5%), 음악감상(20.9%), 운동(12.2%) 등의 순. 전공서적 등을 포함한 한달간의 독서량: 1~2권(31%), 3~5권(43.9%), 5권 이하(74.9%) | '한국대학신보 조사' |

〈표 1〉에서 (1),(2),(5),(9)는 학생 독서경향을 보여주는 내용으로서 중·고교생들은 학교 공부나 TV 등으로 인하여 독서를 거의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1)은 ‘한국출판연구소’가 전국 대학생 670명 대상으로 조사한 ‘대학생 독서실태 조사연구’ 결과이다. 대학생 대부분이 금서라 칭한 책들을 읽었고, 외국저서와 외국작가들을 선호함을 볼 수 있다. 이 기사문에 게재된 내용을 보면, 대학생들이 가장 감명깊은 책을 읽었던 나이는 평균 18세로 나타났으며 이를 다시 각급 학교 시절로 환산하면 이들 책을 중·고교 시절에 읽었다는 비율이 전체의 54%를 차지하였다. 청소년기의 독서가 한 개인의 일생에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었다. 또한 독서교육을 받은 일이 없다고 응답했고, 입학 이후 독후감 숙제가 한번도 없었다는 비율도 전체의 절반에 가까운 49%나 되었다. 책을 추천하거나 내용을 소개하는 등 독서지도를 통해 교수·부모들이 대학생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매우 미미했음을 드러낸다. 대학생들의 설문 결과 독서교육의 부재, 책에 대한 정보의 결핍, 도서관 장서의 문제가 심각하다는 결론이 나타났다.

(9)는 전국 20개 대학 1,98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의식조사 결과이다. 중·고등학생 시절의 독서 부족으로 기본적인 책들인데도 이해하지 못하는 학생들이 많았다. 같은 기사문의 통계에 따르면 매년 도서발행 부수는 늘어났으나 참고서가 차지하는 비중이 89년 48.4%, 90년 49%, 91년 64% 등이었다. 이것은 갈수록 실제 독서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을 반영한다. 평자들은 이렇듯 낮은 독서율은 사회적인 투자가 부족함에서 비롯되었다고 진단했다. 당시 세계 주요 대학 학생 1인당 도서수(한국대학 교육협의회·92년)를 비교해 보면 서울대가 48권인데 비해 일본 동경대 296권, 영국 옥스퍼드대 593권, 미국 미네소타대 251권 등으로 대학에서조차 책에 대한 인식이 뒤쳐지는 실정이었다.³⁵⁾ 또한 선호하는 책을 보면 역사물, 명상록, 추리소설류 등 당시 일반 베스트셀러이기도 하며, 도서실은 미흡한 실정이고 여전히 ‘공부방’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3),(4)를 보면 가구당 교과서·참고서·잡지 등을 뺀 일반서적량이 미흡함을 알 수 있다. 독서보다는 TV·비디오 시청과 같은 오락을 즐기는 경향이 많아지고 있어 전 시기에 비하여 독서량이 감소하고 있다. 특히 (4)는 한국갤럽이 제37회 독서주간을 맞아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의 만 20세 이상 남녀 1,500명을 개별 면접하여 한국인의 독서 및 도서구입 실태를 조사한 결과로서 91년도 전국 독서실태를 다양한 측면에서 제시하고 있어 특징적이다.

(6)에서도 성인들 60% 이상이 책을 전혀 읽지 않는 독서 부진 현상을 보여주고 있는데, 앞 시기보다 더욱 저조한 수치이다. 같은 기사에서는 외국과 비교하여 독서통계를 제시하고 있는데, 당시 프랑스의 경우 1년에 5권 이상의 책을 읽는 비율이 13%, 10~24권이 38%, 1~9권이 24%였으며 한권도 읽지 않는 비율은 25%였다. 또한 일본의 국민학생(초등학생)들이 1년에 평균 100권의 책을 읽는데 비해 우리나라 국민학생(초등학생)들은 2.8권에 그쳐 현저한 차이를 드러냈다. 또 국민학생(초등학생) 가운데 32%는 교과서 이외의 책은 전혀 읽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학원

35) “물질에만 관심...정신투자는 인색”(『中央日報』, 1992.10.4).

또는 집에서 외활동(38.4%)·학교공부(28%)가 독서에 가장 큰 장애요인이라고 응답했다.

(7)은 93년도 통계청 조사로서 당시 우리나라 각 가정의 책 보유량을 조사한 내용이다. 특기할 만한 것은 가구주의 학력이 대졸 이상인 경우 당시로부터 5년 전에는 평균 234·7권이었으나 조사 당시에는 207·1권으로 오히려 줄어든 것이다. 당시 평자들은 사회 오피니언 리더층이 그동안 책 사기에 얼마나 인색했는가를 보여주는 결과라고 판단하였다.³⁶⁾(8)은 ‘한국출판연구소’와 ‘책의 해 조직위원회’가 실시한 “제1회 국민독서실태 조사” 결과이다.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의 성인과 학생을 모집단으로 18세 이상 성인 2,000명과 초·중·고 학생(초등학생은 4학년 이상) 2,700명을 표본으로 뽑아 설문한 내용이다. 이것은 당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독서지표로 평가된다. 그 이전에도 독서실태 조사는 여러 차례 있어 왔으나 대상이 포괄적이지 못하고 독서에 중점을 둔 심도깊은 조사와 분석이 없었다. 이 조사에서도 사람들은 시간이 있으면 TV·비디오 보는데 쓸 뿐 독서에는 관심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³⁷⁾ 여가 시간에 가장 많이 하는 활동은 성인과 학생을 통틀어 TV·비디오 시청이 단연 1위로 나타났다. 책 읽는 시간은 그것의 4분의 1에 지나지 않았다. 이것은 학생들에게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났다.

이상의 통계에서 나타난 우리나라 국민의 독서경향을 보면, 90년대에 들어서 독서운동이 그 어느 때보다 활발히 일어났던 것에 비해 실제로 독서율은 그다지 높지 않았다고 판단된다.

2. 내용으로 본 독서경향

가. 일반 독서경향

다음 <표 2>는 특별히 신문에 게재된 베스트셀러를 지표로 정리한 것이다. 연도별로 보면 아래와 같다.

<표 2> 90년대 초기 연도별 베스트셀러(『中央日報』 기사 자료)

| 연도 | 베스트셀러 |
|------|--|
| 1990 | 오쇼 라즈니쉬의 명상록 『배꼽』, TV 인기물과 관련된 『소설등의보감』, 미래진단서 앨빈 토플러의 『권력이동』, 이태형의 『2000년의 한국』, 기업경영 관련서 『시민을 위한 경제이야기』(이영탁), 『경제 에세이』(권오철), 『저 낮은 경제학을 위하여』(정운영), 『재미있는 경영이야기』(조동성 외), 『작은 밑천으로 돈버는 이야기』(매일경제신문), 『이런 직업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다』(조경동), 『오패상으로 성공하는 방법』(박주호), 『새로운 인생 내 가게』(심지 편집부) 등, 『깊은 밤 깊은 곳에』, 『계명의 여왕』 등 시드니 셸던의 연작시리즈, 노장사상류 『노자철학 이것이다』(김용욱·통나무), 『감산의 장자풀이』(감산덕청/오진탁 옮김·서광사), 『감산의 노자풀이』(동) 『도일성서와 함께 읽는 노자』(노소현·예인들), 『노자, 그 불교적 이해』(감산덕청/송찬우 옮김·세계사), 『장자』(철학우회1) 학의 다리가 길다고 자르지 마라 (윤재근·등지), 『장자』(철학우회2) 털끝에 놓인 태산을 어이할까 (윤재근) |
| 1991 | 라즈니쉬의 잠언 『배꼽』, 외국의 추리소설 『양들의 침묵』, 『쥬라기 공원』, 실용서 『컴퓨터는 강동이다』, 유머집 『최불암 시리즈』 11종, 맹구 시리즈 4종, 노사연 시리즈 3종, 대밭이 시리즈 3종에 『캠퍼스 유머 여행』, 『사회주의가 뭐 길래』, 『화장실에서 보는 책』 등 30종, 중국 고대 역사적 인물 『소설 제갈공명』, 『소설 강태공』, 『소설 이태백』, 『소설 맹자』, 『소설 논어』, 일본관련서적 『일본의 외교정책』(을유문화사), 『일본 자본주의논쟁』(지식산업사), 『일본기업의 야망』(비봉), 『돈많은 일본 가난한 일본인』(삼과삼) |

36) “책 보유량”(『中央日報』, 1993.4.21).

37) “성인 하루 독서시간 TV시청의 1/4불과”(『中央日報』, 1993.11.10).

| | |
|------|---|
| 1992 | 역사인물 이야기 『소설 토정비결』, 『소설 목민심서』, 『소설동의보감』, 대하소설 『단야』 5권 등과 『세상을 보는 지혜』, 『벽오금학도』, 『스칼렛』, 미국의 추리소설·과학소설 아이작 아시모프의 『파운데이션』, 마이클 크라이튼의 『주라기 공원』, 토머스 해리스의 『양들의 침묵』 등이 유행. 일본번역서 『대망』 1, 2권이 『질풍』, 『울지 않는 새는 죽여라』, 『야망은 꿈인가』, 『덕천가강』 등의 계명으로 재출간 나가오카 게이노스케의 『오다 노부다가』, 시바 료타로의 『덕천가강』, 『제국의 아침』(전8권), 『언덕 위의 구름』 전10권, 오다 마코토의 『소설 입진왜란』, 미야모토 도쿠조의 『왕사』, 『질풍』(언어문화사간·허문열 역), 『울지 않는 새는 죽여라』, 『야망은 꿈인가』, 나가오카 게이노스케의 『오다 노부다가』, 『일본문학·사상명저사전』 등. 만화류 『장길산』(백성민), 『객주』 전10권(이두호), 한길사의 『사군여 새벽을 노래하라』(이현세), 『아마겟 돈』(이현세), 『오! 한강』(허영만), 민예사의 『신의 아들』(박봉성) |
| 1993 | 중복출판분, 『어린왕자』 63개사, 『논어』 50개사, 『데미안』 41개사, 『명심보감』 37개사, 『좁은문』 28개사, 『삼국지』 27개사, 『시티 오브조이』 5종, 『연인』 9종, 『제3공화국』 4종, 『드라큐라』 2종, 60,70년대 소설분, 『김약국의 딸들』, 『서편제』, 『파시』, 『시장과 전장』, 『별들의 고향』, 『부초』 등. 비문인들의 작품집, 『여자의 남자』(김한길), 『메니스의 개성상인』(오세영),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김진명), 『목민심서』(황인경), 『과학원 아이들』(이영섭) 역사·대하소설류 『인간시장』 20권(김홍신), 『토지』 13권(박경리), 『세종대왕』 12권(박종화), 『선도체험기』 16권(김태영), 『장길산』 5권(황석영), 『태백산맥』 10권(조정래), 유주현의 『북극성』, 『소설 대원군』, 『소설 조선총독부』 각 5권, 유현종의 『대조영』 5권, 『소설 임궫성』, 『소설 연개소문』 이상 7권씩, 『바람과 구름과 비』 10권(이병주), 『지리산』 7권, 『장군의시대』 5권, 장동주는 『백정』 10권, 『단야』 7권, 『민적』 5권, 홍성원의 『남과북』, 『먼동』 이상 5권씩 『달과 칼』 5권, 『변경』 5권(이문열), 『녹두장군』 7권(송기숙) 등. 논리시리즈 『논리야 놀자』, 『고맙다 논리야』 등(아동용) |
| 1994 | 점·풍수설류 『팔자대로 산다』(김병석 지음·무궁화), 『알기 쉬운 역점 길흉법』(김백만 지음·관음출판사), 『먼저나 말거나』(목정연·동양역의학 연구원), 『터』(손석우 담계), 『일터와 집터』(김두규 편역·포도원), 『성공하는 집, 실패하는 집』(송영미·참샘) 생활정보서 의료정보도서로는 『名醫』(웅진출판), 『명의 명클리닉』(21세기북스), 『명의. 병원 소프트웨어』(사계절), 『병원정보 소프트웨어』(21세기북스), 시장소개 서적 『서울의 시장』(공간)과 민속예술행사소개 서적 『알뜰 시장 소프트웨어』(장백) 본격소설류 『화두』(최인훈), 『한 말씀만 하소서』(박완서) 『깊은 슬픔』(신경숙), 『너에게 가마 나에게 오라』(송기원) 역사소설류 『동학제』(한승원), 『아리랑』(조정래), 김성동의 『길-어두운 숲속에서』, 『만다라』, 『집』, 책정보지 『책과 인생』, 『월간 책』, 『출판정보』, 『책이야기』, 『문화라이프』, 『圖書新聞』, 『뿌리와 날개』, 『새책소식』, 『북 넷』 등 |

(1) 오락과 실용, 대중추수의 출판 현상

〈표 2〉를 통해 먼저 드러난 점은 1990년대에 초기에는 전 시기와 달리 교양·지식 습득에서 오락 쪽으로 독서 경향이 바뀌어가고 있다는 것이다. 학술·교양서적을 찾는 일반 독자들의 발걸음은 줄어들고 유머집, 추리소설, 실용서 등 가벼운 읽을거리들이 즐겨 읽혔다. 고학력자 간에도 어려운 책 읽기를 기피하고 재미나 실용적인 정보를 얻기 위한 편의주의적 독서가 대세를 이루었다. 동구 공산권의 붕괴 이후 시작된 이념 서적의 퇴조 현상³⁸⁾이 학술·교양 서적에까지 빠르게 확산된 것이다.

이 때문에 자구책을 찾아 나선 인문·사회과학 출판사들은 다른 분야로 눈을 돌리거나 전문학술서 발행을 꺼리는 분위기가 확산되었다.³⁹⁾ 전반적인 사회 분위기가 안정을 잃은 채 혼미를 거듭함에



〈그림 5〉 “외국 추리·과학소설 붐 본격문학소설 안 읽힌다”(『中央日報』, 1992.8.21)

38) “변신 바쁜 사회과학 출판사들”(『中央日報』, 1991.8.7), “읽는사람 없는 「사회과학」서적”(『中央日報』, 1991.11.6).
39) “독서-재미 위주로 흐른다”(『中央日報』, 1992.4.24).

따라 독자들도 사색을 요구하는 책보다 흥미 위주로 책을 선택하거나 충동구매에 이끌렸으며, 또한 출간되는 책의 종류도 엄청나게 늘어나 광고가 뒷받침이 안될 경우 내용이 아무리 좋더라도 치열한 경쟁을 뚫지 못해 사장되는 경향이 높아졌다.⁴⁰⁾ 또한 낙서나 개그 같은 시, 옛날 얘기 같은 소설로 인해 본격 문학이 위기를 맞고 있다는 소리도 높았다.⁴¹⁾

구체적으로 <표 2>를 보면 90년대 초반에 라즈니쉬의 수많은 담론집 가운데서 그럴듯한 잠언만 골라 짜집기한 『배꼽』이 2년 동안이나 베스트셀러 자리를 지켰고, 대중성이 강한 해외 번역서들도 인기가 있었다. 특히 90년도를 시작으로 시드니 셸던의 작품들은 선풍을 일으킬 정도로 애독되었다. 문학성보다 말초적인 재미와 오락적 요소만을 전달하는 셸던의 작품들은 출판사마다 제목을 달리하여 중복출판했다. 한 예로 『The Other Side of Midnight』만 해도, 출판사마다 『한밤의 저쪽』, 『깊은 밤 깊은 곳』, 『배반의 축배』, 『한밤의 축제』 등 다양한 제목으로 출판해 대형서점에서 따로 독립코너를 마련해야 할 정도였다.⁴²⁾ 셸던의 이름이 들어가 있는 책은 어느 것이나 베스트셀러가 될만큼 독자들의 비상한 관심과 인기를 끌었다. 이와 더불어 아이작 아시모프의 『파운데이션』, 마이클 크라이튼의 『쥬라기 공원』, 토머스 해리스의 『양들의 침묵』으로 대표되는 미국의 추리소설·과학소설들도 인기작이었다.⁴³⁾ “외국 추리·과학소설 붐 본격문학소설 안 읽힌다”(『中央日報』, 1992.8.21)에서는 흥미위주의 외국 번역소설이 붐을 이루는 까닭은 기발한 착상, 엽기성 등 흥미를 끌만한 요소들과, 동시에 적당한 지식을 원하는 독자들의 취향에 부합했기 때문이라 분석했다. 또 문학을 하나의 상품으로 취급하는 대자본이 이 같은 소설들을 독서시장의 총아로 발돋움하게 만들었다고 설명했다.⁴⁴⁾

이에 반하는 본격소설은 90년도 중반기로 향하는 94년도에 이르러서야 등장하는데, 최인훈의 『화두』, 박완서의 『한 말씀만 하소서』 등이 상업소설들을 물리치고 대형서점 베스트셀러에 올랐다.⁴⁵⁾ 연이어 중진작가들의 장편소설인 한승원의 『동학제』, 조정래의 『아리랑』, 김성동의 『길-어두운 숲속에서』 등이 속속 등장하게 되는데,⁴⁶⁾ 90년대 초기의 말초적인 대중문학에 대한 회의가 이러한 작품을 만들어낸 것이라 볼 수 있겠다.⁴⁷⁾

40) “판매실적 곤두박질 ‘인스턴트 책’만 찾아”(『中央日報』, 1991.7.12).

41) “낙서·개그 같은 시 옛날 얘기 같은 소설”(『中央日報』, 1992.3.27).

42) “미 시드니 셸던 소설 중복 출판 극성”(『中央日報』, 1990.9.30).

43) “외국 추리·과학소설 붐 본격문학소설 안 읽힌다”(『中央日報』, 1992.8.21).

44) “외국 추리·과학소설 붐 본격문학소설 안 읽힌다”(『中央日報』, 1992.8.21).

45) “본격소설 붐 출판街 강타 최인훈씨 화두 히트”(『中央日報』, 1994.4.6).

46) “중진작가 한승원·조정래·김성동 장편 잇따라 출간”(『中央日報』, 1994.7.24).

47) 중말론과 상업주의가 더욱 위세를 떨치던 당시, 문단·독서시장에서 순수소설 수호에 나섰다. 권오룡·김사인·임우기·황현산·현준만 등 자유주의 문학에서 급진주의 문학에 이르기까지 각기 다른 성향의 평론가 5명은 “소설의 진실과 21세기 삶의 희망을 위해 젊고 진실한 소설을 모아 읽히겠다”며 「21세기 작가총서 간행위원회」를 구성. 1차로 김성동·김원우·이인성·김영현의 작품 선집 4권을 「도서출판 솔」을 통해 선보였다. 이문열·박범신·임철우·오정희·이창동·김한길 등의 작가로 이어지며 매달 1~2권씩 퍼내 「21세기 작가총서」는 대상이 해방 이후에 출생한 작가들로 제한된 것이 특징이다. 순수 한글세대의 작가들이 갖고있는 언어·문학의식을 역시 젊은

또 <표 2>의 91년도를 보면 「최불암 시리즈」, 「맹구 시리즈」, 「노사연 시리즈」 등의 유머집들이 몇 종씩 출판되었는데, 인기 TV 프로그램의 말장난을 모방했거나 인기 연예인을 주인공으로 한 넌센스성 억지 웃음거리를 모은 것들이다. 그런데도 짧은 기간 안에 적게는 수천권에서 많게는 수만권씩 팔려 나갔다.⁴⁸⁾ “소비풍조·젊은층 허탈감 반영”(『中央日報』, 1992.4.24)에서 일부 평자들은 아직은 생산적인 활동에 주력해야 할 사회가 너무 일찍 대량 소비 단계로 들어선 결과 과소비, 오락, 향락을 부추기는 풍조가 만연하다 보니 독서도 소비적, 오락적 경향으로 흘렀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주 독자층인 20대가 명상 서적에서 우화 시리즈로 옮겼다가 다시 유머집으로 넘어가는 것은 사회주의권의 붕괴에 따른 허탈감의 반영이라고 보았다.

실용주의적 서적도 인기가 있었다. 『컴퓨터는 강통이다』처럼 100,000부 이상 팔린 실용서나 『시민을 위한 경제이야기』, 『재미있는 경영이야기』, 『작은 밑천으로 돈버는 이야기』, 『땅·투기의 대상인가, 삶의 터전인가』 등 돈벌이와 관련된 경제 관련 서적들이 독서계의 주목을 끌었다.⁴⁹⁾ 그러면서 또 한편에서는 노자·장자 등의 도가 철학을 다룬 책들이 쏟아져 나왔는데 상당한 독자층을 형성하였다는 점도 아이러니하다. 노장 원전의 번역서 내지 역주본은 이미 70년대 초부터 여러 출판사에서 나와 독자들에게 읽히고 있었으나 90년대에 철학 우화 『장자』시리즈가 특별히 주목받은 이유는 지은이의 주관적 관점에서 재해석하고 알기 쉬운 현대적 문체로 번안해, 장자의 철학사상을 재미있는 이야기로 풀어준 것에서 비롯되었다.⁵⁰⁾ 또한 90년대에는 『만화로 보는 자본주의와 공산주의』, 『만화와 함께 보는 음악사』라는 책처럼 재미와 지식을 주는 만화책이 나오면서 만화가 긍정적으로 인식되었다는 점도 주시할만하다.⁵¹⁾ 이러한 무드에 힘입어 대본소 중심에서 서점 중심을 겨냥한 성인용 장편만화가 출판되었다. 풀빛의 『장길산』(백성민), 『객주』 전10권(이두호), 한길사의 『사군여 새벽을 노래하라』(이현세), 『아마겟 돈』(이현세), 『오! 한강』(허영만), 민예사의 『신의 아들』(박봉성) 등은 이미 대본소를 통해 엄청난 인기를 누렸던 만화들이나 서점용으로 재출간되었다.⁵²⁾

(2) 일본 서적의 인기와 대하 역사소설 붐

91년도부터 독서계에 드러난 또 다른 특징은 소련 공산당 몰락 이후 일본 관련 도서가 증가하였다는 점이다. 세계 각국이 일본의 급성장을 경계하며 일본을 제대로 알려고 노력하는 반면 36년간 지배를 받아온 우리만 유독 무모할 정도로 일본의 잠재력을 과소 평가해온데 따른 반성에서 비롯

평론가들이 분석하여 독자들이 새 세대의 소설과 비평의 감각·의식을 더불어 접할 수 있게 했다. (“「참 소설」을 위한 40대 홀로서기”, 『中央日報』, 1992.6.8)

48) “독서-재미 위주로 흐른다”(『中央日報』, 1992.4.24).

49) “돈벌이 서적 인기 높다”(『中央日報』, 1990.12.26).

50) “이야기로 풀어 쓴 장자철학”(『中央日報』, 1991.12.22).

51) “두가지 출판의 경우”(『中央日報』, 1990.4.8), “클래식 입문서 출간 봇물”(『中央日報』, 1994.10.27).

52) “성인만화 「서점판매시대」개막”(『中央日報』, 1992.8.14).

된 것이다. 일본을 제대로 알고 세계 질서 재편 흐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우리 민족번영의 관건이라고 생각한 것이다.⁵³⁾ 이에 따라 『일본의 외교정책』, 『일본 자본주의논쟁』, 『일본기업의 야망』 등 일본의 이해를 돕는 저서들이 속속 출간되었다. 여기에 무라카미 하루키 등 일본 인기 작가들의 대중소설들, 즉 오다노부 나가·도쿠가와 이에야스·도요토미 히데요시 등 일본 영웅소설들이 앞다투어 출판되었다. 『대망』이 1, 2 권으로 축약돼 각기 다른 출판사에 의해 『질풍』, 『울지 않는 새는 죽여라』, 『야망은 꿈인가』, 『덕천가강』 등의 제명으로 재출간되었다. 이외에도 시바 료타로의 3부작 대하소설 중 1부 『제국의 아침』(전8권), 3부 『언덕 위의 구름』(전10권) 등과 대중·추리문학 등도 번역됐다.⁵⁴⁾

90년대 초기는 일본 대중문화가 무분별하게 들어오고 있던 때이기도 한데 일본만화, 잡지, 가요 등의 배끼기가 특히 문제시되었던 시기였다. 문학, 사상 등 정신적 영역에서마저도 일본 배끼기가 논란이 되었다.⁵⁵⁾ 젊은 작가들이 일본 하루키 등의 인기소설에 감염된 것 뿐 아니라 그 윗세대들도 알게 모르게 그들의 작품, 평론, 학문에서 일본을 배끼고 있다는 비판의 소리도 일었다. 이러한 자성의 분위기 속에서 일본 근·현대 100년에 걸친 문학과 사상의 흐름을 조감할 수 있는 『일본문학·사상 명저사전』(고재석 저)이 출간되기도 했다.⁵⁶⁾

92년도부터는 대하 역사소설 붐도 일었다. 『소설 제갈공명』, 『소설 강태공』, 『소설 이태백』, 『소설 맹자』, 『소설 논어』 등 중국 고대 역사적 인물들에 관한 소설들도 인기가 있었고.⁵⁷⁾ 이지만, 정약용, 허준, 임궫정, 연개소문, 황진이, 김옥균 등 한 시대를 풍미했던 역사적 인물을 다룬 『소설 토정비결』, 『소설 목민심서』, 『소설 동의보감』 등이 교보서점 등 대형서점에서 베스트 순위에 올랐다. 출판사들은 이와 같이 90년대 들어 역사적 인물소설이 잘 읽히는 이유를 ‘당대의 삶을 총체적으로 그린 모범적 장편 부재’, ‘후기자본주의의 파편화된 삶에서 총체적인 옛 선인들의 삶의 형태에 대한 향수’, ‘다른 인물의 삶에 대한 인간본연의 호기심’ 등에서 찾았다.⁵⁸⁾



〈그림 6〉 “출판계 일 관련 서적 늘어난다”(『中央日報』, 1991.11.1)

53) “출판계 일 관련 서적 늘어난다”(『中央日報』, 1991.11.1), “세 무장 미화시킨 일 시대소설 이상붐”(『中央日報』, 1992.4.12).
 54) “한일 「문학역조」 심각하다”(『中央日報』, 1992.5.14).
 55) ‘오늘의 작가상’ 수상작가 박일문의 수상작 『살아 남은 자의 슬픔』이 하루키의 표절로 시비거리에 올랐고, 이를 계재한 『문학정선』 발행인 김수경 등은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등 혐의로 대구지방법검찰청에 고소됐다.(“문단 ‘일작가 모방’ 일파만파” 『中央日報』, 1992.9.1).
 56) “『일본문학·사상 명저사전』 근·현대사 흐름 한눈에”(『中央日報』, 1993.5.31).
 57) “서점가에 추리·중국역사인물 소설 불티”(『中央日報』, 1991.8.16).
 58) “황진이 김옥균 정약용 『역사인물 소설』 쏟아진다”(『中央日報』, 1992.6.12).

(3) 중복 출판과 본격문학 복고바람

앞서 인기 작품 출판 현상에서도 보았듯이, 출판계의 고질적 병폐인 중복출판은 90년대에 들어서 더욱 성행했다. 그것은 문고판, 전집류, 아동용, 단행본 등 전 분야에서 이루어졌다. 93년 당시 대한출판문화협회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10개 이상의 출판사가 중복출판한 책만 해도 50여권에 이르렀다. “중복출판 또다시 기승”(『中央日報』, 1993.3.12) 보면 당시 최고 중복출판은 『어린왕자』로 무려 63개사가 참여했다. 다음은 『논어』 50개사, 『데미안』 41개사, 『명심보감』 37개사, 『좁은 문』 28개사, 『삼국지』 27개사 등으로 집계됐다. 이밖에 시드니 셸던의 전 작품이 21개 출판사에 의해 번역돼 나왔다고 한다. 특히 영화가 상영되면 같은 내용의 소설들이 급하게 번역 혹은 번안 구성돼 서점가에 나왔는데, 이 같은 예로 『시티 오브조이』가 5종, 『연인』이 9종, 『제3공화국』이 4종, 『드라큐라』가 2종 나왔다. 이 기사문에서는 중복출판이 성행하는 가장 큰 이유는 출판사 입장에서 보면 대개 큰 돈은 못 벌더라도 기본 부수는 쉽게 넘긴다는 사실을 인지함이며, 지방의 경우 특히 수익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어 출판사들이 쉽게 다가서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그러나 이러한 출판 현상은 시류에 편승한 급조 출판이라 그 질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 규제와 자성이 필요하다고 지적받기도 했다.⁵⁹⁾

한편 독서계에 60, 70년대 소설이 재발간되는 현상도 나타났다. “독서계 60~70년대 소설 복고바람 분다”(『中央日報』, 1993.8.25)를 보면, 62년 발표된 박경리의 장편 『김약국의 딸들』과 64년 작품 『파시』, 68년에 발표한 『시장과 전장』 각 2권이 다시 나왔고, 70년대와 80년대 초 발표된 이청준의 중·단편 8편을 모은 『서편제』가 대형서점 집계 베스트셀러 수위를 오르내리며 독서계에 복고바람을 일으켰다. 여기에 최인호, 한수산 등의 작품으로 70년대 발표작인 『별들의 고향』, 『부초』 등도 재출간되었다. 당시 비평계에서는 이러한 현상을 두 가지 원인에서 찾았다. 첫째, 독자들이 90년대 들어 흥미했던 역사인물 소설에 식상하였고, 둘째, 허황된 옛 이야기, 포스트모더니즘을 내세워 신변잡기적 감상이나 털어놓는 소설에 식상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에 새로운 본격장편을 원하는 독자들의 욕구를 충족시킬만한 작품이 나오지 못하고 있는 현실 때문에 복고붐이 일었다는 것이다.⁶⁰⁾ 이를 통해 당시 독서계는 전환을 요구하는 시대였음을 볼 수 있다.

(4) 유럽의 한국문학 붐, 오디오북과 전자책, 기타 독서경향

93년도 “유럽 출판계 전속계약붐”(『中央日報』, 1993.3.8)이라는 기사를 보면, 이문열, 최인호, 김성동, 오정희 등 10여 명의 작품이 프랑스와 이태리 등에서 잇따라 출간되어, 유럽 독서계에 한국 문학붐이 일고 있었음을 볼 수 있다. 프랑스의 ‘아트쉬드’가 90년 이문열의 『금시조』를 처음으로 번역, 출간하면서 한국소설에 손을 대기 시작했고, 잇달아 이청준, 조세희, 이균영, 김승욱, 최인

59) “『중복출판』 또다시 기승”(『中央日報』, 1993.3.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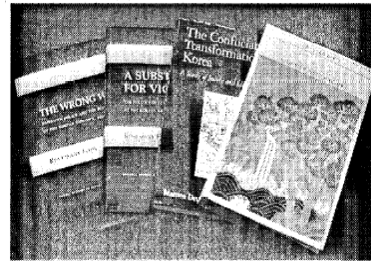
60) “독서계 60~70년대 소설 복고바람 분다”(『中央日報』, 1993.8.25).

호의 작품집을 펴냈다.⁶¹⁾ 또 동구권과의 교류가 활발해지면서 폴란드의 주요 문예지인 계간 『세계문학』에서 전권을 한국문학 특집으로 꾸미는 등 한국문학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었다. 분단으로 양 체제의 긴장을 살아낸 한국문학이 각기 사회주의 리얼리즘 또는 자본주의 문예사조에 경도됐던 동·서구 문학에 신선한 자극을 주며 유럽 독서계를 과고들었다는 것이다.⁶²⁾ 이에 문학계에서는 국내 작품의 해외 소개가 중요하고도 시급한 명제로 부상하게 되었다.

한편 이 시기에는 컴퓨터 통신망으로 책 내용 전체를 온라인으로 읽는 PC ‘전자책’ 이용이 늘기 시작했다. 전문회사들의 판매 서비스, 유통망도 다양해져 국내 독서문화에 새로운 바람을 암시했다.⁶³⁾ 전자책은 당시 일반인에게는 아직 생소한 개념이었으나 장소나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원하는 책을 바로 그 자리에서 받아볼 수 있다는 장점으로 당시로서는 전망을 지닌 분야였다.

94년경에 독서계의 새로운 현상으로 성인용 도서에도 듣는 책 즉 ‘오디오북’ 출간이 점차 늘어났다는 점도 주목된다. 이미 89년부터 출간되기 시작했으나 일반화되지 못하다가 이 시기에는 그 종류와 출간량이 늘어나는 추세였고 그 예로 『어린 왕자』, 『동봉스님이 엮은 오디오 반야심경』, 『한국사 강의』, 『음악의 이론』, 『음악의 역사』 등이 나왔다. 특히 오디오북의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것은 역시 듣기라는 형식과 가까운 낭송 시집 분야로서, 『화사집』(서정주), 『만남에서 동반까지』(박열), 『동반에서 영원으로』(박열) 등이 꾸준히 팔렸다.⁶⁴⁾

‘책의 해’인 93년도에 논리 입문서와 에세이집이 각각 1, 2위를 다투는 특이한 현상을 보였다는 점도 특기 사항이다. “논리입문. 에세이 베스트셀러 1. 2위석권”(『中央日報』, 1993.12.6)에서 밝힌 바, 『반갑다 논리아』(사계절)와 『여보게 저승갈 때 뭘 가지고 가지』(고려원)가 그 예이다. 전자는 어린이 도서로 출간되었는데, 논리적 사고력을 중시하는 대학수학능력 시험제도의 도입에 따라 초·중·고생 모두에게 애독되었다. 논리학, 즉 철학책이 베스트셀러가 된 것은 우리나라 출판사상 처음이었다. 수필집 역시 베스트셀러가 된 것은 67년 전해린의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림 7〉 한국을 연구한 서적들(“유럽 출판계 전속계약 붐”, 『中央日報』, 1993.3.8)



〈그림 8〉 오디오북(“독서도 음악감상하듯 오디오북 출판 활기”, 『中央日報』, 1994.2.23)

61) “유럽 출판계 전속계약 붐”(『中央日報』, 1993.3.8).

62) “한국문학 해외소개 힘쓸때”(『中央日報』, 1993.12.2).

63) “전자책 서비스다양 독서계 새바람”(『中央日報』, 1994.8.27).

64) “독서도 음악감상하듯 오디오북 출판 활기”(『中央日報』, 1994.2.23).

이래 26년만의 일이었다. 솔직하고 친근한 분위기로 엮어나간 이 책은, 정신적으로 기댈 곳 없는 현대인들에게 마음의 휴식처를 제공하는 내용과 지속적인 광고 효과가 맞물려 베스트셀러가 된 것이다.⁶⁵⁾

또한 94년도 말에는 『팔자대로 산다』, 『알기 쉬운 역점 길흉법』, 『믿거나 말거나』 시리즈, 『사주』, 『터』 등 점이나 풍수 관련 서적들이 인기를 얻었는데, 미신에서라도 위안을 얻어야 하는 사람들의 고달픈 삶의 반영이라고 보았다.⁶⁶⁾ 정보를 효과적으로 수집하고 활용하는 방법을 담은 종합 안내서도 속속 출간되었다. 『93 비즈니스 정보백과』(매일경제신문사), 『은행소프트』(한빛), 『경제정보 소프트』(의암출판), 『경제기사 읽는 법』(거름), 『경제기사 소프트』(사계절) 『알뜰 시장 소프트』(장백) 등 경제를 포함한 전체적인 정보를 다루는 법을 알려주는 책과, 의료정보 도서 『名醫』(웅진출판), 『명의 명클리닉』(21세기 북스), 『명의·병원 소프트』(사계절), 서울의 유명 전문시장을 소개한 『서울의 시장』(공간), 민속예술 행사 등을 소개한 『알뜰 시장 소프트』(장백) 등 주제도 세분화되어 다양하게 선보였다.⁶⁷⁾ 각종 정보가 홍수를 이루는 현대사회에서 필요한 정보의 소재와 그 수집 및 정리, 활용 방법을 알아야겠다는 소위 ‘정보 마인드’가 점차 확산되고 있었음을 반영한다.

나. 학생 독서실태

(1) 아동⁶⁸⁾ 독서실태

(가) 독서실태

“서울시 국교 3분의 1 도서실 전무”(『中央日報』, 1993.3.11)에 따르면, 1993년도 서울시 교육청의 조사 결과 서울 시내 국민학교(초등학교)의 절반 이상이 도서실이 없거나 도서실이 있는 경우에도 장서수가 법정 기준에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책의 해’를 무색케 했다. 당시 시내 490개 국민학교(초등학교) 중 34·5%인 169개교가 아예 도서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학교시설 설비기준령’에 규정된 학급당 100권 이상의 단행본을 비치한 학교도 전체의 54.9%인 269개교에 불과했다고 한다. 더구나 이들 학교가 보유한 도서의 상당수는 발간한 지 5년 이상돼 88년 고시된 새 맞춤법 및 표준어규정에 맞지 않아 어린이들의 독서교육용으로 적합하지 않은 실정이었다.⁶⁹⁾ 또한 초등학생 대부분이 공부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학원을 마친 어린이들은 독서보다는 TV나 비디오 시청, 운동에 여가를 보내는 것으로 밝혀졌다.⁷⁰⁾ 한편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가 92

65) “논리입문. 에세이 베스트셀러 1.2위 석권”(『中央日報』, 1993.12.6).

66) “점, 풍수 관련서적 날개돋쳤다”(『中央日報』, 1994.2.12)

67) “정보수집.활용 안내서 봇물”(『中央日報』, 1993.9.26), “생활정보서 주제 세분화 내용도 짝짝”(『中央日報』, 1994.2.16).

68) 본고에서는 특별히 수준별 독서경향을 살펴는데 있어 아동·중고생·대학생 등으로 층위를 두고 살폈다. 아동은 초등학생보다 범주가 넓은 개념이다. 본고에서는 초등학생 중심의 논의이되 아동 전반적인 독서경향을 함께 살펴보는 것을 염두에 두었기에 ‘아동독서’라 쓰고 있다.

69) “서울시 국교 3분의 1 도서실 전무”(『中央日報』, 1993.3.11).

70) “국교생 69%가 성적 고민”(『中央日報』, 1993.4.16).



〈그림 9〉 “방정환 등 국내작가 동화 선정 전국 돌며 책전시 독서강연”(『中央日報』, 1994.10.28).

년도에 12개 초등학교 4, 5, 6학년 61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어린이 독서경향 및 독서환경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학생들이 가장 좋아하는 책이 명랑소설(23.5%)과 공포추리소설(22.1%)로 나타나 흥미 위주의 독서경향을 보였다. 또 책의 구입면에서 어린이가 직접 사는 경우(42.3%)가 어른이 사주는 경우(20.8%)보다 훨씬 많아 범람하는 아동 도서시장 속에 어린이들이 무방비 상태로 놓여있는 것으로 드러났다.⁷¹⁾

한편 90년대 초 “책읽기”(『中央日報』, 1992.8.1)라는 기사를 보면, 당시 국민학교(초등학교) 학생들이 가장 인기있는 책으로 꼽은 것이 『드래곤 불』, 『닥터 스프링』, 『복두신권』 등 일본 번역 만화들이었다. 또한 대개 집집마다 부모가 사준 50~100권 한 질로 된 동화책, 위인전 등 아동도서를 많이 가지고 있었지만 정작 학생들은 잘 읽지 않는다고 했다. 그 이유는 양이 너무 많아 보기도 전에 질리고, 글씨가 작고, 책표지도 딱딱하고 모두 같은 모양인데다, 실제로 시대에 뒤떨어진 내용이 많아 재미없다는 것이었다. 특히 우리나라 위인전은 현실감이 없고 재미가 없어 끝까지 읽어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대부분의 아이들은 위인전을 학교에서 독후감 숙제 등으로 내줘 강제로 읽은 몇 권을 빼고는 끝까지 읽은 것은 외국 위인전 1~2권에 불과하다고 했으며, 숙제로 읽은 위인전도 대부분은 어린 시절 이야기는 건너뛰고 숙제에 필요한 부분만 발췌해 읽는 경우가 많았다고 한다.

이 기사문에서 밝힌 바, 어린이들이 그래도 읽은 것 중 가장 재미있게 읽은 위인전은 에디슨과 같은 외국의 위인들이었다. 이순신 장군, 세종대왕 등 우리 선조 위인을 꼽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오히려 우리 선조들 중에는 훌륭한 과학자도 없고 순전히 장군이나 정치가 뿐이라고 불평하기도 했다. 그런데 여기에서 80년대 학생독서 경향과 비교해 보면 그 변화상을 감지할 수 있다. 82년도 ‘동방생명’의 ‘학생독서실태 조사’⁷²⁾에 따르면 학생들이 가장 많이 읽는 종류가 위인전(국민학생 51.9%, 중학생 42.5%)으로 나타났으며, 가장 존경하는 위인은 국민학생(초등학생)의 경우 이순신 장군을, 중학생은 세종대왕을 들었고, 84년 ‘MBC, 어린이 의식’ 조사 결과에서도 어린이들이 감명깊게 읽은 책으로 『이순신 전기』 등 국내 위인들을 꼽았다.⁷³⁾ 이와 다르게 90년대 들어서서 어린이들이 위인전을 별로 읽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외국 위인들을 선호한다는 점 등이 상반적이다. 여기에다 참고로 어린이들이 꼽은 재미있는 동화로는 ‘안데르센 동화’를 꼽았고 학교에서 읽으

71) “국내작가 못볼 외국작품 풍성 전래동화 발굴 어린이 책 다양해졌다”, 『中央日報』, 1992.5.4.
 72) “가장 많이 읽는 책은 위인전”(『中央日報』, 1982.11.17).
 73) “MBC, 어린이 의식 조사 ”(『中央日報』, 1984.5.29).

리는 우리나라 동화는 가장 재미없는 책⁷⁴⁾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위와 같은 서구 추수의 독서풍토를 바꾸려는 의도에서 ‘어린이도서연구회’ 등의 독서운동이 일어났다. 전국을 돌며 ‘어린이와 책’ 문화 행사를 열고, 어린이들에게 국내 작가가 쓴 책들을 읽도록 하는 행사를 펼쳤으며, 어린이 책 전시와 판매, 책그림 전시회,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책을 골라줄까”를 주제로 한 학부모 대상 독서강연회, 가족신문 전시회, 그림책 슬라이드 상영 등 그 내용도 다양했다.⁷⁵⁾ 더 나아가 각종 문화 단체에서는 어린이 독서 안내를 위한 양서 목록을 제시했다. 학생독서 실태는 학생들 스스로 어떤 책을 애독하는가도 중요하지만 어떤 책이 양서로 추천되고 있는가도 주시할 필요가 있다. 학생 독서 자료는 부모, 혹은 학교나 교육 단체에서 선택·지도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 시기에 주로 선정된 도서를 몇 개 들면 다음과 같다.

(1) ▲ 동시= 『어린이 낭송 시집』(예림당) 『한국 명작 동시』(가나) 『착한 것 찾기』(미리내) 『바람과 빈병』(아동문예) 『어린 떠돌이』(창작과 비평) 『눈사람의 휘파람』(늘푸른) 『장미 스님』(아동문예) 『꽃보다 별보다 아름다운 이야기』(윤성) 『헨리와 말라깽이』(현암사) 『젯빛 토끼와 파란 장화』(신구미디어) 『두만강 해란강 전설』(지경사) ▲ 전기= 『할아버지 손은 약손』(소년한국일보) 『저 월계관을 향하여』(백호) ▲ 역사= 『흥미로운 국보여행』(산하) ▲ 수기= 『안녕할 수 없는 세월』(지경사) ▲ 과학= 『파브르 곤충기』(고려원미디어) 『참붕어의 사랑 고백』(웅진) 『재미있는 발명 여행』(명지) 『뇌 속의 여행』(서광사) ▲ 체험담= 『이럴 때 아빠가 좋아요』(아동문예 작가회·어린이재단)

“우수도서 20권 발표”(『中央日報』, 1992.12.26)

(2) ▲ 방정환: 『사랑의 선물 1.2』(신구미디어) ▲ 마해송: 『사슴과사냥개』(창작과 비평사), 『떡배 단배』(신구미디어) ▲ 이원수: 『갓난 송아지』(삼성미디어), 『꼬마 옥이』 『해와 같이 달과 같이』(창작과 비평사) ▲ 이주홍: 『피리부는 소년』(상, 하), 『못나도울엄마』 『사랑하는 악마』(창작과 비평사) ▲ 권정생: 『짱구네 고추밭소동』(웅진출판), 『하나님의 눈물』 『하나님이 우리 옆집에 살고있네요』(산하), 『몽실언니』 『점득이네』(창작과 비평사) ▲ 이현주: 『아기 도깨비와 오토제국』(웅진출판), 『날개달린 아저씨』(창작과 비평사) ▲ 손춘익: 『새를 날려보내는 아저씨』 『어린 떠돌이』(창작과 비평사), 『도도새와 카바리아 나무』(웅진출판) ▲ 윤기현: 『해가 뜨지않는 마을』 『서울로 간 허수아비』 『회초리와 훈장』(산하) ▲ 장문식: 『누나와 징검다리』(창작과 비평사), 『도둑마을』(산하) ▲ 이금이: 『가슴으로 크는 나무』(계몽사), 『밤티마을 큰돌이네』(대교출판), 『영구랑 흑구랑』(현암사)

“방정환 등 국내작가 동화선정 전국 돌며 책전시 독서 강연”(『中央日報』, 1994.10.28).

74) “책읽기”(『中央日報』, 1992.8.1).

75) “방정환 등 국내작가 동화선정 전국 돌며 책전시. 독서 강연”(『中央日報』, 1994.10.28).

(1)은 ‘한국어린이 독서문화회’에서 92년 하반기 우수도서 20권을 선정된 것이고, (2)는 어린이 도서연구회가 선정한 10명의 국내 동화작가와 그 작품이다. 이를 보면 주로 국내 저서를 분야별로 제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바로 전 시기까지의 추천 도서 목록에서는 주로 위인전이 다수인 경우가 많았는데 그러한 틀을 깨고 있음이 주목된다.

(나) 출판물의 경향

90년대 초기에는 학습만화가 다수 출판되었다. 어린이에게 친숙한 만화라는 형식으로 어려운 역사나 과학 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 “초중생에 인기 높은 학습만화 마구잡이 해적판 요주의”(『中央日報』, 1990.12.10)의 보도에 따르면, 계몽출판사의 『학습만화한국사』, 웅진출판사의 『애니메이션 한국의 역사』 등의 전집이 좋은 반응을 얻었다. 이같은 학습만화 붐이 불기 시작한 것은 유럽의 풍물사를 담은 이원복의 『먼 나라 이웃나라』가 1,000,000부 가량 팔리면서부터이며 이후 다수의 출판사들이 학습만화 시장에 뛰어들었다. 학습만화의 내용도 광범위해져 초기의 명심보감, 삼강오륜, 고사성어 등을 알기 쉽게 풀이한 고전물이나 과학, 수학 등 학습만화에서 역사, 위인전, 성교육을 주제로 하는 것, 교과서를 만화화한 것까지 다양했다.⁷⁶⁾ 이러한 붐과 함께 『겨레의 인걸 100인』을 비롯해 『떠돌이 검둥이』, 『공룡나라 우리엄마』 등 교훈을 주는 만화들도 출판되었다. 90년대에 들어서 만화가 긍정적인 측면에서 아동들의 독서자료로 활용된 것이다. 그러면서 『드래건 불』, 『시티 헌터』 등 불법 일본만화 추방운동이 펼쳐지기도 했다.⁷⁷⁾ 또한 93년 어린이날에는 서울 YWCA에서 “어린이날 선물은 좋은 만화로 합시다”를 내걸고 교보문고에서 ‘좋은 만화 잔치’가 열렸다. 불량·폭력 만화의 홍수 속에서 어린이들에게 주부 모니터 요원들이 꼼꼼히 가려 뽑은 만화들을 골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한 행사였다.⁷⁸⁾

한편 출판사들은 국내 창작동화, 외국 현대 명작동화, 전래동화 등은 물론 교양, 교육, 철학 동화류 등을 장기 기획물로 출판했다. 그 결과 아동도서 선택의 폭이 넓어지고 질적으로도 향상되었다. 민음사에서는 ‘어린이책’ 기획 시리즈로 『서정주 세계 만화집』 전5권, 『프랑스동화』 전10권, 『영국·미국동화』 전9권 등을 펴냈고, 국민서관에서는 전래동화·세계동화·생활동화 등 주제별로



〈그림 10〉 “어린이날 최고의 선물 좋은 만화 잔치”(『中央日報』, 1993.4.23).

76) “초중생에 인기 높은 학습만화 마구잡이 해적판 요주의”(『中央日報』, 1990.12.10).

77) “교훈주는 만화만 퍼낼 생각”(『中央日報』, 1992.9.30).

78) “어린이날 최고의 선물 좋은 만화 잔치”(『中央日報』, 1993.4.23).

나뉜 이야기를 모은 유아용 그림동화 『어린이 나라』 전9권, 창작동화 『어린이와 함께 보는 창작동화집』 전13권을 펴냈으며, 신구 미디어에서는 한국의 대표적 동화작가들의 작품집인 ‘어린이를 위한 사랑의 선물’ 시리즈로 방정환의 『사랑의 선물』을 비롯하여 마해송의 『떡배 단배』, 강소천의 『나는 겁쟁이다』 등을 펴냈다. 이와 함께 외국 회사와의 계약에 의한 아동도서 출판도 늘었다. 도서출판 파랑새에서는 세계적인 만화 제작사인 미국의 월트디즈니와 저작권 계약을 하고 ‘월트디즈니 문고’로 『디즈니의 인어공주』, 『디즈니의 미녀와 야수』 등을 펴냈고, 동학사는 아르헨티나의 아르헨토레스사와 계약하여 아벨산타크루스의 『천사들의 합창』 전10권을 완간하였다. 이러한 움직임으로 아동 도서시장도 안데르센으로 대표되는 세계 고전 아동문학의 틀을 벗어나게 되었다.⁷⁹⁾

또한 컴퓨터 시대에 발맞춘 출판 형태들도 나타났다. 종이에 인쇄된 책 대신 컴퓨터 화면의 그림동화와 연재만화를 즐기는 PC 독서문화가 전개된 것이다. 93년 2월 한국 PC통신은 한국 전래동화와 세계명작, 그림동화 등을 인터넷을 통하여 연재하기 시작했고 호응도 좋았다.⁸⁰⁾ 이와 함께 스크린북, 게임북, 하이퍼북 등 어린이와 학부모들의 눈길을 끄는 어린이 도서들이 잇따라 선보였다. 종래의 책 개념과 다른 이런 종류들은 TV나 전자오락에 탐닉하는 대부분의 어린이들에게 인기가 높았다. 그 한 예로 『윌리를 찾아라』 시리즈나 『슈퍼마리오』 시리즈는 선풍적인 인기를 얻었다.⁸¹⁾ 한편에서는 이러한 현상에 대해 흥미위주의 오락성이 높아 차분히 정독하는 습관을 들이지 못하게 한다는 평가를 내렸다.⁸²⁾



<그림 11> “컴퓨터시대 어린이들 독서풍속 바꾼다”(『中央日報』, 1993.2.9)

(2) 중고생과 대학생의 독서실태

사회나 학교에서 벌이는 학생 독서운동은 실제로 취학 전 아동이나 초등학생 시기에 거의 집중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중고생의 경우는 입시로 인한 교과 공부로 독서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시기별 독서양상을 보면, 정책적인 변화로 인해 독서교육이 강화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1970년대 후반의 경우, 초·중·고생들의 독서생활을 보다 체계적으로 지도하기 위한 정책이 서울시 교위당국에 의해 추진되기도 했다. 즉 시교위 당국은 각급 학교별로

79) “국내창작 못볼 외국작품 풍성 전래동화 발굴 어린이 책 다양해졌다”(『中央日報』, 1992.5.4).
 80) “컴퓨터시대 어린이들 독서풍속 바꾼다”(『中央日報』, 1993.2.9).
 81) “흥미 과고드는 어린이 게임북”(『中央日報』, 1993.12.6).
 82) 한편 어린이들만을 위한 어린이 전문책방이 생기기도 했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어린이 전문책방은 유아용 그림책과 동화책, 교육용 만화책, 백과사전류만 취급하며 오락 만화책과 참고서류는 팔지 않았다. 「초방」, 「산샘」, 「여우오줌」, 「동화나라」 등이 그 예였다.(“어린이 전문 책방 성업”, 『中央日報』, 1993.8.2)



〈그림 12〉 “청소년 독서문화 변화-수능 영향 독서길잡이책 ‘블티’”(『中央日報』, 1993.12.29).

우량도서 20권씩을 선정하여 1주 1시간씩 일제히 독서 시간을 갖고 학생들로 하여금 이 책들을 반드시 읽도록 지시했다. 독서지도를 정규 교과활동의 일환으로 추진케 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었다.⁸³⁾ 1980년대 초에는 특히 공교육 내에 큰 변화가 일었던 시기로서 대학입시에서 본고사가 폐지되고 과외수업이 금지되었다. 소위 ‘7·30교육개혁’이라고 불리운 이 교육개혁은 ‘입시위주 교육’에서 ‘전인교육’으로 전환한다는 취지에서 비롯되었다. 달라진 교육 정책에 따라 고교교육 전반에서도 변화를 보이기 시작했다. 영어, 수학, 국어에만 치중했던 종전의 교육에서 ‘특별활동’ 시간을 활용한 독서, 수예, 서예, 운동 등의 교육으로 비중이 옮겨갔다.⁸⁴⁾ 이러한 교육 환경의 변화와 함께 1980년대 초 정부의 ‘국민독서생활화’ 운동 추진 방안에서는 특별히 학교교육을 통한 독서생활 정착에 가장 큰 역점을 두고 있었다. 초·중·고교에서 학년별로 알맞는 필독도서를 선정하고 독서결과를 학습성적 평가에 반영케 했으며, 대학에서도 각기 도서선정위원회를 두고 독서지도를 강화시키도록 하였다.⁸⁵⁾ 또한 86학년도부터 대학입시에 논술고사를 포함한다는 보도가 있자 독서의 필요성이 더욱 절실한 실정이 되었다. 그러다 88년도에 논술시험이 없어지게 되자 학교에서 독서지도 시간을 폐지하는 등 독서교육이 소홀해지기 시작했다.⁸⁶⁾

그런데 또 다시 90년대에 들어서서 대학수학능력 시험의 경향이 바뀌게 된다는 보도가 있었다. 언어영역의 경우 어휘력, 문장독해력, 언어추리력 등을 특정 과목에 편중하지 않고 통합교과적인 소재를 사용하여 출제한다는 것이었다. 기존의 학력고사 국어처럼 국문학, 국문학사, 문법 등 지식 위주의 문제는 묻지 않고 교과서 밖의 문장도 폭넓게 출제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학생들은 교과서에만 얽매이지 말고 문학, 사회, 과학, 역사, 철학 등 다양한 분야의 책을 평소 두루 읽어 폭넓은 교양을 쌓아야만 했다. 교사들도 주입식 교육에서 벗어나 토론·토의 방식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수업을 진행하였다. 학생들에게 신문·잡지는 물론 문학, 철학, 과학 등 다양한 분야의 책을 읽도록 독서환경을 조성하기도 했다. 학생들의 이해력·사고력·추리력·비판력 등을 길러주는 것이 중요한 문제로 인식되었다.⁸⁷⁾ 고교 수업에서 독서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실정이 되자 대부분

83) “독서지도”(『中央日報』, 1978.4.26)

84) 「과외없엔건 아주 잘한 일 본고사 폐지엔 찬반 갈려」(『中央日報』, 1980년 9월 22일자), 「인간교육의 여건」(『中央日報』, 1980년 10월 14일자).

85) 「독서의무화 교육」(『中央日報』, 1981.11.7)

86) 「어린이엔겐 책과 사랑을」(『中央日報』, 1987.4.30.)

87) “대학수학시험 다양한 독서 통해 「생각하는 힘」배양”(『中央日報』, 1992.5.18).

고교들이 자율학습 시간을 이용하여, 주 1시간 정도 의무적으로 책을 읽게 하는 ‘독서교실’을 운영하기도 했다.⁸⁸⁾

결과적으로 수험생을 비롯한 청소년들 사이에 독서 풍토가 형성되기 시작했다. 독서 경향도 신간 베스트셀러에 한정되던 것이 종합적인 사고능력을 키울 수 있는 현대문학, 고전, 철학, 과학 분야에 까지 확대되었다. 이에 따라 대형서점들의 문학, 일반상식, 과학서적 코너 등은 청소년들로 크게 붐볐다.⁸⁹⁾ 그 결과 종래의 문제집이나 참고서 판매량이 줄어든 대신 수학능력 시험을 치루어야 할 청소년들이 널리 읽어야 할 교양도서들이 출판되기 시작했다. 청소년들을 위한 단행본 도서가 드물던 현실에서 『한국인의 과학정신』(평민사), 『내 작은 인생이 흔들려요』(한아름), 『상식속의 철학, 상식밖의 철학』(새길), 『환상의 수리탐구여행』(장백), 『그 산하 그 인걸』(배영사), 『너의 용기만큼 큰 산』(사계절) 등이 출판되었다. 교과서와 참고서를 빼고는 달리 읽을만한 책도, 읽을 시간도 없다시피 하던 청소년들에게 수능시험의 영향으로 독서문화가 형성된 것이다.⁹⁰⁾

또한 “수능준비에 더위도 잇고”(『中央日報』, 1993.7.21)에 제시된 바, 중고등 학생들을 위한 독서교육 잡지들이 독서생활의 길잡이 역할을 표방하고 잇따라 선보였다. 그 예로 지학사의 『고교 독서평설』, 『중학독서평설』, 『중학생 독서친구』, 『만화 독서광장』, 『디딤돌』, 『고교 독서평설』, 『글과 생각』, 『독서광장』 등 고교생 대상 독서잡지 뿐만 아니라 중학생 대상의 잡지까지 출간되었다. 한편 『즐거운 독서여행』 1, 2(내일을 여는 책) 등 청소년을 위한 독서 지침서, 『놀면서 하는 공부』 『웃으면서 하는 공부』(한민사) 등 사고력, 탐구력을 기를 수 있는 공부 방법 안내서 등이 인기를 모았고, 그런가 하면 『교과서 속의 숨은 이야기』(동쪽나라)처럼 교과서와 관련된 근본 원리 및 사실을 중심으로 상식과 이해를 넓힐 수 있는 이야기들도 출판되었다.⁹¹⁾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에서 청소년들이 읽어야 할 ‘좋은 책 30종’을 선정하여 발표하기도 했다. 간행물윤리위는 각계 전문가들의 추천 및 서평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연 4회 선정도서를 추천했다. 참고로 선정된 권장도서 30종은 다음과 같다.

- (4) ▲『꽃과 소녀와 달과』(김동리/제3기획) ▲『미술의 길』(임영방/벽호) ▲『사랑하는 사람을 위하여』(정호승/제3기획) ▲『시간의 종말』(크리슈나무르티/고려원) ▲『새로운 철학이 열린다』(한스 라이헨 바하/새길) ▲『노벨상을 가슴에 품고』(오길록외/동아일보사) ▲『과학과 근대세계』(화이트헤드/

88) “고교마다 독서·영어듣기 비상”(『中央日報』, 1993.6.22).

89) “수능준비에 더위도 잇고”(『中央日報』, 1993.7.21).

90)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 도서실이 제 구실을 못한다. 전인교육의 밑바탕으로 독서지도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특히 대입 수능시험과 논술시험 도입에 따라 학생들 사이에 독서열기가 한층 뜨거워지고 있었지만 대부분의 학교 도서실이 학생들의 이같은 욕구를 충족시킬만한 도서를 보유하고 있지 못한 실정이었다. 94년 4월 당시 서울 시내 학교도서실의 학생 1인당 보유 장서수는 중학교 1.71권, 고교 3.01권. 그나마 낡거나 오래된 책이 대부분이었다. (“中·高校 도서실 유명무실-장서 낡고 신간 거의 없어 외면”, 『中央日報』, 1995.4.18).

91) “청소년 독서문화 변화-수능 영향 독서길잡이책 불티”(『中央日報』, 1993.12.29).

을유문화사) ▲『아원자입자의 발견』(스티븐 와인버그/민음사) ▲『한국인이여 잠에서 깨어나자』(조규하/고려원) ▲『21세기 경제정책의 대전환』(이형구/고려원) ▲『유럽을 움직이는 사람들』(정영수 外/현암사) ▲『바로 쓴 세계청소년의 생활과 미래』(이재욱, 신명신/실록) ▲『저 흙 속에도 신바람을』(성진근/을유) ▲『조지워싱턴』(플렉스터/고려원) ▲『우리의 선사문화』(이용조 外/지식산업사) ▲『민요와 민중의 삶』(한국민속학회/우석) ▲『상 식속의 상식』(도널 에이브리스/장택) ▲『그래도 바람개비는 돈다』(이여령/동화서적) ▲『자기를 팔만큼 가난하지 않고 남을 살만큼 부유하지 않은』(피천득 外/범우사) ▲『재미있는 고전여행』(김창현/김영사) ▲『가정교육』(조선일보 사회부/우석) ▲『부끄러운 A학점보다 정직한 B학점이 낫다』(박광철/비전) ▲『하늘이 알고 땅이 알고』(하태성/잡인) ▲『마음의 샘』(박제천/문학아카데미) ▲『인간관계개선훈련』(유동수/청년문화사) ▲『생활에서 수학을 이해하는 책』(안재구/일월서각) ▲『다섯개의 창이 있는 집』(유경환/동아) ▲『우리나라 아이들이 좋아서』(이준관/대교) ▲『숨어서 빛나는 이야기』(편집부/국민서관) ▲『어린이 상식백과』(전경재/동화문학사)

“이런 책이 마음의 양식-간행물윤리위 30권 선정”(『中央日報』, 1994.4.20)

지금까지 다룬 학생독서 경향은 주로 초·중·고생 중심으로 다루었다. 20세 이상인 대학생들의 독서경향은 거의 일반인 독서경향과 일치한다. 앞서 다루었기에 따로이 그 목록들을 제시하지는 않겠다. 그러나 몇 가지 특기 사항을 들자면, 70년대 대학의 교양과목에서 중시했던 독서 관련 과목은 80년대에 들어서서 점점 감소하는 추세였고, 그 결과 80년대 말 우리나라 대학생들의 독서량은 당시 선진국 대학생들과 비교해 크게 부족한 실정이었다.⁹²⁾

이에 “대학정신을 되찾자.”라는 표어를 내걸고 대학교수들이 ‘작은 대학운동’을 전개했다. 지적·도덕적·문화적으로 황폐화된 대학을 살리기 위해 소위 ‘작은 대학’이라는 독서 강좌를 열었는데, 우선 이 대학의 수강생들은 1년간 적어도 20권의 책을 읽어야만 했다. 학생들은 2주 1권 독과를 원칙으로 플라톤의 『국가론』,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치학』, 칸트의 『실천이성비판』, 헤겔의 『법철학』, 마르크스의 『공산당선언』 등이 포함된 필수도서 15권과 역사, 현대문명론, 예술 및 미학 관련 선택도서 5권을 섭렵하게 되어 있었다. 20권의 책을 읽은 후엔 6개월에 걸쳐 연구 논문을 작성하고, 역시 토론으로 진행되는 논문 심사에 통과해야만 졸업하게 되었다.⁹³⁾ 이렇듯 대학에서도 새롭게 독서 분위기를 조성하려는 움직임이 일기 시작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그동안 소홀히 해 왔던 교양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즉 대학의 교양 과정에서 독서관련의 강좌를 마련하고 학생들에게 과제물을 내주며, 독서 결과를 심도있게 발표하고 토론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새로운 교육방식이 빨리 정착되고 확산되기 위해서는 고전(古典)에 국한된 교재

92) “전국 대학생 1년에 전공서적 3권도 안 읽어”(『中央日報』, 1989.11.3).

93) “지성인배출 모토 교수들 앞장 ‘작은 대학’”(『中央日報』, 1993.5.8).

만이 아니라 보다 폭넓은 텍스트를 개발해야 하고, 강의 방식도 보다 면밀히 연구해야 한다는 주장도 보였다.⁹⁴⁾ 오늘날 교양교육에서 다시금 독서(읽기)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현상과 유사한 내용이다.

IV. 1990년대 초기 학계의 독서교육 연구

마지막으로 90년대 초기의 독서운동과 비교하여 학계에서의 독서교육(읽기교육) 연구 동향을 살펴보고 마무리 지으려고 한다. 1990년대 초기는 5차 교육과정기((1988~1992)가 끝나고 6차 교육과정기(1992~1997)가 진행되던 시기이다. 이 시기에는 기초 교육의 강화, 정보화 사회에 대응하는 교육의 강화, 교육과정의 효율성 제고를 지향하였다. 국어과 교육과정은 언어 사용 기능의 신장을 궁극적 목표로 하여 기능 중심 교과로서의 성격을 부각시켰다. 이에 따라 교수, 학습 상황에서의 주체를 학생으로 하고 언어 사용의 결과(product)보다 과정(process)을 중시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교육과정의 정신이 보다 효율적으로 현장 교육에까지 미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교수학습의 실제성을 중시하고 교육과정 '내용'의 진술 속에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고자 하였다.⁹⁵⁾

또한 1992년에 개정 고시된 6차 교육과정기(1992~1997)의 구성 방향은 첫째, 민주주의 공동체 의식 함양에 역점을 두는 교육. 둘째, 변화에 대한 창조적 대응력을 배양하는 교육. 셋째, 교육의 보편성과 특수성의 조화를 추구하는 교육. 넷째, 학습자의 경험 세계가 증시되는 교육 등 네 가지로 정리된다. 이러한 이념적 지향을 고려하면서 국어과 교육과정은 목표와 내용, 방법 및 평가에 관한 사항을 일관된 축으로 구성하여 보다 체계적인 국어과 교육을 실행하고자 하였다. 이에 따라 국어과 교육과정 구조의 체계화, 목표 체계의 구조화, 내용의 정선 및 내적 구조화, 지도 및 평가 지침의 구체화를 기본 방향으로 삼았다.⁹⁶⁾ 또한 6차 교육과정기는 실용 중심 교육을 지향하던 시기로서, 학문 중심 교육과정과 활동 중심 교육과정의 통합 절충을 통해 교육의 실용성을 강조하였다. 즉 관련 분야의 학문이 제공해 주는 지식 또는 개념을 구조화해서 가르치는 교육에 역점을 두는 한편, 국어사용 기능을 신장시켜 주는 교육을 강조하였다. 특히 주목할 것은 고등학교의 경우, 공통 필수 과목으로 '국어'를, 그리고 과정별 필수 선택 과목 또는 과정별 선택 과목으로 '화법', '독서', '작문', '문법', '문학'이 설정되었다는 점이다.⁹⁷⁾ 결과적으로 기존에 없던 '화법'과 '독서' 과목이 신설된 것이다. 이러한 국어과 상황에서 당시 독서교육(읽기교육) 관련 단행본은⁹⁸⁾ <표 3>과 같다.⁹⁹⁾

94) "교양교육이 필요한 까닭"(『中央日報』, 1994.11.12).

95) 손영애. 21세기 국어교육학의 현황과 과제, 서울: 한국문화사. 2002. p.32.

96) 박영순. "국어교육과 한국어교육", 한국어학(한국어학회), 6집(1997). pp.122~123 참조.

97) 정준섭, 국어과 교육과정의 변천(서울: 대한교과서주식회사, 1996), p.213.

98) 학계의 관련 연구물들은 학술지 게재 논문, 석박사 학위논문 등도 함께 살펴 보아야 한다. 그러나 지면상 연구의

〈표 3〉 1990~1995년도 독서교육(읽기교육) 관련 단행본

| 번호 | 저자 | 제목 | 연도 | 출판사 | 범주 |
|----|--------------------------|--------------------------|------|-------------------|--------------|
| 1 | 녹진 편집부 | 무엇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 1990 | 녹진 | 독서방법 |
| 2 | 김수남 | 책나라로 가는 길 | 1991 | 현암사 | 독서일반 |
| 3 | 임성훈 | 독서학습 | 1992 | 읽음사 | 독서일반 |
| 4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 책마을로 가는 징검다리 | 1992 | 돌베개 | 독서일반 |
| 5 | 정범모 | 대학생활과 독서 | 1992 | 서울산업대학 학생생활연구소 | 독서대상 |
| 6 | 조혜정 | 탈식민지 시대 지식인의 글읽기와 삶읽기(1) | 1992 | 또하나의문화 | 독서대상 |
| 7 | 김기중 | 리더빌리티: 읽기의 이론과 실제 | 1993 | 일진사 | 독서이론 |
| 8 | 신헌재 외 | 독서교육의 이론과 방법 | 1993 | 서광학술자료사 | 독서이론 및 방법 |
| 9 | 안도섭 | 책과 어떻게 친구가 될까 | 1993 | 소나무 | 독서방법 |
| 10 | 이유선(역)/ Wolfgang Iser | 독서행위 | 1993 | 신원문화사 | 독서일반 |
| 11 | 차봉희 | 독자반응비평 | 1993 | 고려원 | 독서대상 |
| 12 | 한겨레신문사 문화부 | 책 이야기 | 1993 | 한겨레신문사 | 독서일반 |
| 13 | 허병두 | 열린교육과 학교도서관 | 1993 | 고려원 미디어 | 독서대상 |
| 14 | 고은 | 책 어떻게 읽을 것인가 | 1994 | 민음사 | 독서방법 |
| 15 | 박수자 | 독해와 읽기지도 | 1994 | 국학자료원 | 독서방법 및 지도 |
| 16 | 오연희(역)/ Adler | 논리적 독서법 | 1994 | 한국독서 교육연구원 | 독서방법 |
| 17 | 조동일 | 독서·학문·문화 | 1994 | 서울대학교출판부 | 독서일반 |
| 18 | 허재영 | 고교독서의 길잡이 | 1994 | 서광학술자료사 | 독서대상 |
| 19 | 이대규 | 수사학: 독서와 작문의 이론 | 1995 | 신구문화사 | 독서이론 |
| 20 | 최진(역)/ E. 버니스 컬리언 | 독서왕이 성공한다 | 1995 | 프레스빌 | 독서일반 |

〈표 3〉의 독서관련 단행본을 내용적인 측면에서 범주화 하면, 독서일반(김수남, 임성훈, 전국교직원노동, 이유선 역, 조동일, 최진 역), 독서방법(녹진 편집부, 신헌재 외, 안도섭, 고은, 박수자, 오연희 역), 독서대상(정범모, 조혜정, 차봉희, 허병두, 허재영), 독서이론(김기중, 신헌재 외, 이대규), 독서지도(박수자) 등 다양하게 쓰여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독서교육(읽기교육) 분야의 단행본은 3차 교육과정기(1973~1981)부터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 이후 계속해서 이 분야는 증가 추세를 보인다.¹⁰⁰⁾ 6차 교육과정기까지의 범주별 권수를 비교해 보면 〈표 4〉와 〈그림 13〉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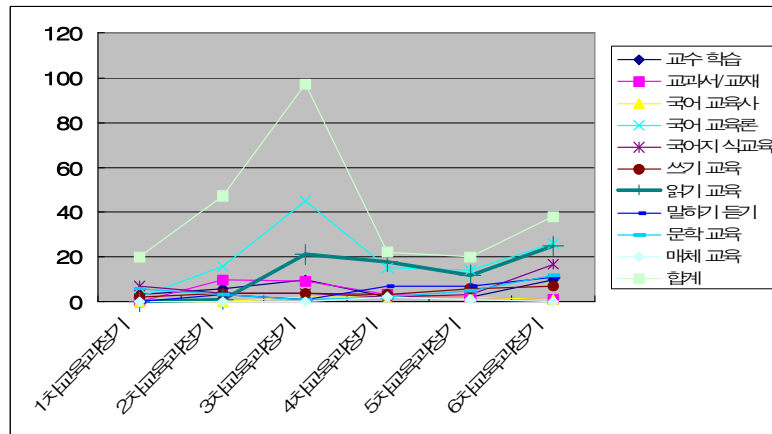
총체적인 측면을 보여주는 단행본만을 살폈다.

99) 윤여탁 외, 국어교육 100년사(2)(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2006), pp.449-452 참조.

100) 윤금선, “근현대 국어교육 양상2,” 국어교육연구(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 제13집(2004), pp.482-485 참조.

〈표 4〉 1차~6차 교육과정기 범주별 단행본 권수

| | 교수 학습 | 교과서 /교재 | 국어 교육사 | 국어 교육론 | 국어지 식교육 | 쓰기 교육 | 읽기 교육 | 말하기 듣기 | 문학 교육 | 매체 교육 | 합계 |
|---------|-------|---------|--------|--------|---------|-------|-------|--------|-------|-------|-----|
| 1차교육과정기 | 3 | 0 | 0 | 2 | 7 | 2 | 0 | 0 | 6 | 0 | 20 |
| 2차교육과정기 | 6 | 10 | 0 | 16 | 4 | 4 | 1 | 3 | 3 | 0 | 47 |
| 3차교육과정기 | 10 | 9 | 2 | 45 | 4 | 4 | 21 | 1 | 1 | 0 | 97 |
| 4차교육과정기 | 2 | 3 | 2 | 15 | 2 | 3 | 18 | 7 | 2 | 2 | 56 |
| 5차교육과정기 | 2 | 2 | 2 | 14 | 3 | 6 | 12 | 7 | 5 | 1 | 54 |
| 6차교육과정기 | 10 | 1 | 1 | 26 | 17 | 7 | 25 | 11 | 12 | 0 | 110 |



〈그림 13〉 1차~6차 교육과정기 범주별 단행본 비교 그래프

〈표 4〉와 〈그림 13〉에서 나타나듯이 독서교육(읽기교육) 분야는 국어교육론을 제외하고 가장 현저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것은 학계에서도 독서교육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분야보다도 지대했음을 보여주며, 사회적인 독서 대중화의 움직임과 함께 독서교육의 이론 정립도 함께 이루어 지고 있었음을 드러낸다.

V. 맺음말

이 연구는 근현대 독서 대중화 운동을 전반적으로 검토하기 위한 시론으로서 특별히 1990년대 초기의 양상을 분석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첫째, 1990년대 초기 독서 대중화 운동의 양상, 둘째, 1990년대 초기의 독서경향 등으로 대별하여 고찰하였다.

첫째의 경우는 크게 1. 도서관을 통한 독서운동, 2. '책의 해'와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을 통한

독서운동, 3. 출판계와 문화단체를 통한 독서운동 등으로 나누어 살펴본다. 그 결과 도서관에서는 매년 '독서주간'에 다양한 행사로 '책의 축제'를 마련하였고 이를 통해 정기적으로 독서붐을 일으켰다. 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각종 프로그램을 통해 일반인과 학생들의 독서를 유도했음 알 수 있었다. 특별히 93년도는 '책의 해'로서 거국적인 독서운동이 펼쳐져 독서계가 활성화된 계기가 된 시기이다. 출판계나 여러 문화단체들의 독서운동도 활발했다.

둘째의 경우는 1. 통계에 나타난 독서경향, 2. 내용으로 본 독서경향으로 나누어 고찰하였다. 1의 경우에는 통계 수치로 다양한 측면의 독서경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90년대는 그 어느 때보다 독서운동이 활발했던 데 비해 실제로 독서율은 저조했다는 점이 눈에 띈다. 2의 경우는 일반독서와 학생독서로 구별하여 분석했는데, 일반의 경우는 1) 오락과 실용, 대중추수의 출판 현상, 2) 일본 서적의 인기와 대하 역사소설 붐, 3) 중복 출판과 본격문학 복고바람, 4) 유럽의 한국문학 붐, 오디오북과 전자책, 기타 독서경향 등으로 살펴본다. 여기에서 1990년대 초기에는 교양·지식 습득에서 오락 쪽으로 독서 경향이 바뀌어가고 있었고, 일본을 제대로 알고 효과적으로 대응하려는 풍토에서 일본서적이 대거 출판되었으며, 과거를 들어 당대를 경계하게 하는 역사물이 시대적 요구에 의해 읽혀졌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고질적인 중복출판 현상이 90년대에 풍미했으며, 90년대 초반기 흥미위주의 독서가 90년대 중기로 가는 시기에는 본격문학으로 돌아서고 있음을 볼 수 있었다. 또한 유럽에 한국문학 붐이 일던 시기로 주목되며, 오디오북과 전자책 등 기타 독서경향은 매체가 급변하는 시대적 요구에 의한 흐름으로 판단된다. 학생독서 경향은 1) 아동독서 실태, 2) 중고생과 대학생의 독서실태 등으로 살펴본다. 사회나 학교에서 벌이는 학생 독서운동은 실제로 취학 전 아동이나 초등학생에 거의 집중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중고생의 경우는 입시로 인한 교과 공부로 독서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시기별 독서양상을 보면, 정책적인 변화로 인해 독서교육이 강화되는 경우를 볼 수 있었다.

지금까지 1990년대 초기 독서 대중화 운동의 다양한 측면들을 고찰해 보았다. 이 시기는 5차 교육과정기에 이어 6차 교육과정이 진행되던 때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연구자들의 읽기교육에 대한 관심과 함께 연구서들도 다수 발간되었다. 이것은 사회적인 독서운동 뿐 아니라 학계에서도 독서교육에 관심이 많았던 시기였음을 의미한다. 여기에서 공교육 내의 독서교육과 사회 독서운동과 어떤 영향 관계에 있었는지 등에 대한 고찰도 필요할 것이다. 지면 관계상 이는 차후의 과제로 돌리고자 한다.

참 고 문 헌

- 『中央日報』(1990~1995)
- 박영민. “독서 교육의 성격과 유형.” 청람어문교육(청람어문교육학회) 제31집(2005), pp.53-74.
- 박영순. “국어교육과 한국어교육.” 한국어학(한국어학회), 6집(1997). pp.11-132.
- 신헌재 외. 독서 교육의 이론과 방법. 서울 : 서광학술자료사. 1993.
- 손영애. 21세기 국어교육학의 현황과 과제, 서울 : 한국문화사. 2002.
- 윤금선. “근현대 국어교육 양상2.” 국어교육연구(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 제13집(2004), pp.439-501.
- 윤금선. “1920-30년대 독서운동 연구.” 한말연구(한말연구학회), 제17집(2005), pp.129-167.
- 윤금선. “해방 이후 독서 대중화 운동 연구.” 국어교육연구(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 제17집(2006), pp.333-380.
- 윤금선. “日帝強占期 學生 讀書運動 研究.” 語文研究(韓國語文教育研究學會), 제133호(2007), pp.389-413.
- 윤금선. “독서 대중화 운동 연구 -1970년대를 초기를 중심으로.” 국어교육(한국어교육학회), 제124호(2007), pp.271-294.
- 윤금선. “1970년대 독서 대중화운동 연구 - 중·후반기를 중심으로.” 국어교육연구(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 제20집(2007), pp.339-382.
- 윤여탁 외. 국어교육 100년사(1)~(2), 서울 : 서울대학교출판부. 2006.
- 이경화. “도서관 활용 독서교육의 방안.” 청람어문교육(청람어문교육학회), 제32집(2005), pp.75-97.
- 정준섭. “국어과 교육과정의 변천.” 서울 : 대한교과서주식회사, 1996.
- 천정환. “근대의 책읽기.” 서울 : 푸른역사. 2003.
- 한성택.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변천과정에 관한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한국도서관·정보학회), 제33권 제4호(2002), pp.307-330.
- 한철우. “독서교육 연구 및 지도방안 탐색: 독해과정 연구와 독서 교육: 1970년대 이전.” 한국국어교육연구회논문집(한국어교육학회), 33(1988), pp.18-37.
- 허재영. “국어과 교육과정과 독서교육론의 전개 -학문적 정체성 확립 과정을 중심으로.” 한말연구(한말연구학회), 제16집(2005), pp.265-301.

